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박물관·미술관 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고 은 주

2011 년 8 월

박물관·미술관 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강 동 언

고 은 주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 년 8 월

고은주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

위 원 \_\_\_\_\_ ㉠

위 원 \_\_\_\_\_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년 8 월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ducational Programs of  
Museums & Galleries  
- Focusing on Jeju Island -

Ko, Eun-Ju  
(Supervised by professor Kong, Dong-U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11.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Thesis director, Kang, Dong-Un Prof. of Art Education

Department of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박물관·미술관 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

고 은 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지도교수 강 동 언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다른 지방과는 현저히 다른 지리, 역사적 특성으로 현재까지 남아있는 고어는 물론, 학술가치가 높은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우리 조상들의 독특한 전통문화를 통하여 현재의 지역 문화가 지나온 발자취를 알아보고 그 뿐만 아니라 문화 재창조의 발판이 되도록 관심을 지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지을 수 있는 박물관·미술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박물관·미술관의 여러 기능 중 전시기능 및 연구기능에 연계된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박물관·미술관을 통한 교육기능은 인간의 정서적인 기능과 실제 경험을 통한 지식적, 논리적, 인지력을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도 내의 박물관·미술관 교육프로그램 현황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육프로그램의 여러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제주지역의 박물관·미술관 교육이 개선해야 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지역의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교육프로그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주지역 박물관·미술관은 일반적인 전시 관람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다른 박물관·미술관과 비교했을 때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진행은 미비하지만 방학을 이용한 지역 학생과의 호홉 및 특정행사를 통한 가족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각 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의 연구가 미흡하고, 관리가 허술하여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구체적인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 없이 전시물 위주의 관람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의 박물관·미술관 내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박물관과 미술관의 교육을 위한 자료나 정보·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강의, 세미나, 연수와 같은 구체적인 방법 제시가 미비하다. 때문에 박물관·미술관 내 프로그램 기획자나 교사에 대한 연구 양성화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지역의 박물관·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훌륭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으며 박물관·미술관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학생들이 전시감상을 비롯한 교육프로그램에 흥미와 관심을 지니게 되어 제주도의 독특한 지역 문화와 예술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사료된다.

## 목 차

국문초록 .....	i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
II. 박물관 · 미술관 교육의 이론적 배경 .....	3
1. 박물관 · 미술관의 개념과 역사 .....	3
2. 박물관 · 미술관의 교육 및 기능 .....	6
III. 제주도내 박물관 ·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실태조사 .....	10
1. 교육프로그램의 유형 .....	10
2. 제주도내 박물관 ·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현황 .....	22
3. 제주도내 박물관 ·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53
IV. 결론 .....	56
참고문헌 .....	58
ABSTRACT .....	60

## 표 목 차

<표 1> 박물관·미술관 프로그램의 분류 .....	11
<표 2>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유형 분류 및 내용 .....	13
<표 3> [어린이] 특별전 연계프로그램 .....	24
<표 4> [어린이] ‘어린이와 꿈 나누기, 행복충전소’ 프로그램 .....	25
<표 5> [유치원단체] ‘박물관 호기심 천국’ 프로그램 .....	26
<표 6> ‘제1기 어린이 박물관 학교’ 프로그램 .....	27
<표 7> [어린이] ‘박물관 보물찾기’ 프로그램 .....	29
<표 8> [가족] 박물관 나들이 프로그램 .....	29
<표 9> ‘박물관과 하나되기’ 문화프로그램 .....	30
<표 10> 객석나눔 프로젝트 ‘가야금과 해금’ 연주 .....	31
<표 11> 가족과 함께하는 영화감상 프로그램 .....	32
<표 12> ‘가족과 함께하는 명화감상, 세시풍속’ 체험프로그램 .....	36
<표 13> 박물관 스페셜 강좌내용 .....	37
<표 14> 청소년 문화체험마당 프로그램 .....	38
<표 15> 즐기며 협동하는 박물관학교 프로그램 .....	39
<표 16> 평생학습관 운영 및 홍보 프로그램 .....	40
<표 17> 그림책원화전 체험프로그램 .....	42
<표 18> 제주도립미술관 예술영화 감상회 프로그램 .....	44
<표 19> 제주도립미술관 음악 감상회 프로그램 .....	45
<표 20> 작가초청 프로그램 .....	47
<표 21> 행복가득 ! 기쁨충전 ! 우리들세상 ! 어린이날 맞이 이벤트 행사 .....	48
<표 22> 가정에 달 교육프로그램 .....	50
<표 23> 함께하는 음악 교육프로그램 .....	51
<표 24> 2010 열린 미술관으로의 초대 클래식프로그램 .....	52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인 경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박물관, 미술관을 찾고 있다. 미술관에서의 창작 활동, 감상교육, 그리고 박물관의 전시품 체험, 논리적 인지력과 상상력 계발의 기회는 미술교육의 중요성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을 통한 미술 교육의 결과인 작품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기능도 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미술교육은 제7차 교육과정의 교수 학습방법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등을 한 학기에 1회 이상 관람하도록 하고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을 통한 학교 미술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교육을 목적으로 어린이 미술관과 같은 전용 미술관의 운영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 진행되고 있으며, 박물관과 미술관 교육양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많은 박물관, 미술관들이 좋은 프로그램과 교육적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개발하여 발전에 매진하고 있으며, 디지털과 다양한 정보전달 체계화를 통하여 제주지역에 평생학습 사회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학교와 여러 학습단체에서도 이러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학습에 참여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안겨주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박물관·미술관에서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 교육적 결과를 느끼고 있다.

제주지역에 박물관·미술관을 통한 교육도 앞서 말한 우리나라의 박물관·미술관 교육의 변화 발전에 맞추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

제주의 박물관·미술관은 환경적인 제약이나 어려움으로 교육의 목적이 잘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으며 미술관의 실정이나 경제적 여건, 전문 인력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활발한 교육 프로그램이 실천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따라서 제주

지역의 박물관·미술관 교육은 그것이 지닌 충분한 잠재력을 인식하고 학습과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여 끊임없이 교육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 박물관·미술관의 미술교육 실천과 활성화 방안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제주지역 박물관·미술관 프로그램 현황을 조사하여 개선해야 할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주지역의 박물관·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사례를 조사하여 비교분석하고, 개선점을 모색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에 대한 연구와 역사에 대하여 이해하고, 박물관·미술관 교육의 중요한 요소와 유형을 이해하고자 전문 학자들의 연구를 기초로 한 문헌조사를 통하여 박물관 미술관의 미술교육에 대한 이론을 알아보았다.

둘째, 박물관·미술관 교육을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국내 논문과 직접방문, 박물관·미술관 전화통화, 인터넷 사이트, 학술지를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제주 지역의 박물관·미술관 교육 프로그램 현황조사는 갤러리나 문화원 등을 제외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으로 명시되어 있는 곳만으로 한정하여 박물관, 미술관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및 과거에 실시되었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넷째, 국내 박물관·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사례와 제주지역의 박물관·미술관 교육프로그램 현황조사로 얻어진 자료들을 정리하여 분석한 제주지역의 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나아갈 방향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II. 박물관 · 미술관 교육의 이론적 배경

박물관 · 미술관 교육의 개념과 역사를 알기 위해 이론적 배경을 조사하고, 박물관 · 미술관의 역할과 기능을 통해 그곳의 전반적인 의미를 파악하였다. 또한 박물관 · 미술관의 교육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 교육의 개념과 교육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 1. 박물관 · 미술관의 개념과 역사

“미술관은 역사박물관, 과학박물관, 동물원, 수족관, 식물원 등과 함께 박물관의 일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박물관 자료 중에서 주로 미술에 관한 자료를 취급하는 시설로 구분 된다”.<sup>1)</sup>

“여기에서 말하는 큰 의미의 박물관을 살펴보면, 우리말 ‘박물관’은 영어 ‘뮤지엄(museum)’을 번역한 것으로 ‘뮤지엄’은 ‘뮤제이온(mouseion)’에서 유래했다. ‘뮤제이온’은 ‘학예’를 관장하는 아홉명의 뮤즈(muse)여신의 전당을 지칭하였으며, 이전 세대의 신선한 지혜와 유산을 일상적 삶의 폐해로부터 보존하는 성소로서의 개념이었다.

“박물관 · 미술관은 일상생활 또는 종교에 기원을 두는 도구나 물건의 수집에서부터 생겨났다. 석기시대부터 원시인은 이미 어떤 법칙에 따라 제작하거나 재구성한 물건을 자신의 주변에 모아 놓았는데, 이는 인간의 소유 본능의 형태를 바꾸어 놓은 것이다. 거대 뮤제(muse)라는 신에게 바쳐진 신전(최초의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는 뮤제이온(mouseion)은 아테네의 헬리콘 언덕에 세워졌다)에는 기증물이나 상납물 또는 예술가에게 연감을 줄 만한 신에게 바치는 물건(텔피에 있는 아테네인들의 보물 등)들이 모아졌다. 그것들은 마치 제봉틀과 우산이 한

1) 한미애(2001), 「큐레이터 · 그리고 미술관」, 서울 : 정주, p.126.

테이블 위에 우연히 놓인 경우처럼 방패, 성스런 유물, 비명, 향아리, 조각, 왕관, 등 미적 기준이나 통일성은 없지만 박물관 수집품의 기원이 되고 있다”.<sup>2)</sup>

로마의 박물관 미술관은 철학적인 토론을 위해 마련된 별장의 한 부분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얼마 후 그리스를 정복한 로마 군대가 약탈품을 가지고 온 후 오늘날의 의미인 박물관이 등장한다. 르네상스 시대의 귀족들과 문화인들은 신을 위한 특별한 방이 만들어져 수집품들의 연구와 함께 명상을 하는 곳으로도 사용되었다. 골동품 진열실에는 진귀한 유물 또는 가공되거나 이상한 모양의 유물들 및 미술작품들을 무더기로 쌓아 놓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예술 활동과 골동품 수집 취미와의 구분이 생겨나고, 이 둘은 장차 미술관과 자연사박물관으로 구별되었다. 경험이 풍부한 애호가, 문화인, 예술 후원자, 고상한 취미의 귀족과 기부인들의 특별한 수집품이 일반적으로 원형이나 육각형의 공간에 전시된 데 비해서 명품을 전시하는 또 하나의 장소가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갤러리다. 프랑수아 1세는 조각 작품이나 회화작품 등 훌륭한 수집품들을 전시하기 위해 퐁텐블로 궁 안에 처음으로 다섯 개의 대형 갤러리를 개관했는데 이는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갤러리로 유명하다. 최초의 고대 갤러리는 1471년 한 로마 교황이 세운 카피톨 박물관으로 군주나 교회는 예술의 가장 큰 후원자가 되었다. 이런 것들이 미술사 또는 자연사박물관의 효시가 되었다. 루이 13세의 식물원은 다른 범주에 속하지만, 역사박물관은 당시 성 안의 저명인들의 초상화를 수집, 전시하는 갤러리와 함께 등장한다.

“교육을 목적으로 한 최초의 박물관, 미술관은 1683년 옥스퍼드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앓슈몰리언(Ashmolean) 미술관으로서 전시공간과 함께 도서관과 연구소가 부설되었다. 당시 이러한 목적으로 만든 미술관의 규칙이나 카탈로그가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다”.<sup>3)</sup>

18세기 말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의 결과 내셔널리즘이 대두되어 이들 값진 문물은 특권 권력자의 소유물이라기보다 국민 전체의 소유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후로부터 소장품은 문화유산, 문화재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된다. 프랑스에서는 국민의회에 의해 1793년 루브르 미술관과 프랑스 기념물박물관이, 1794

2) 김혜경 율김/한병삼 감수(1996), 「미술관/박물관이란 무엇인가」, 화산문화, p.21.

3) 「상세서」

년에는 미술공예학교와 자연사박물관이 설립되었으며, 이미 19세기 초 유럽 대도시에는 대형 종합 박물관이 건립 되었다. 이때부터 수집품은 단지 개인의 위신을 세우기 위한 도구나 오락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 실증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제2차 세계대전, 후 특히 동유럽 제국에 많은 박물관·미술관들이 생겨났으며 미국의 많은 박물관·미술관들은 삼각형의 박공을 가진 고대신전과 두 개의 둥근 지붕이 함께한 거대한 대성당이 기묘하게 결합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869년에 세워진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그 3년 후 건립된 센트럴 파크를 사이에 둔 자연사박물관을 들 수 있다.

19세기 말에 이르면 문화유산의 보호와 연구의 책임자로서 관장 및 고나련종사자들 외에 학회와 고고학자가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며, 역사에 관한 수집의 주체가 서서히 공공단체나 정부기관으로 바뀌게 되었다.

20세기에 일어난 그 혁신적인 일은 북유럽 제국과 미국 등이 자연공원을 만든 것인데, 이는 지역의 민족과 민속 문화 연구에 공헌하는 최초의 야외박물관이 되었다. 현재 스웨덴이나 그 주변의 나라에는 자연 그대로를 보여 주는 야외박물관이 400군대 이상이나 된다.

민족문화유산, 대중의 과학교육 및 문화발전과 민주화, 인간과 자연의 생태학 발전에 의해 점차 많은 박물관이 설립되었으며, 회의실, 응접실, 연구실, 휴게실과 교육적인 업무 및 대출업무를 위한 공간, 또 연구자, 단체, 어린이, 장애인 등 특수 관람객에 고나한 특별공간이 마련되었다. 1920년 이후 박물관·미술관에는 전시기획(Museography)의 발전과 함께 같은 속도로 철근 콘크리트 건축기술이 발달되었는데 이 시대에 근대의 미술관이 등장한다.

## 2. 박물관·미술관의 교육 및 기능

박물관·미술관의 일반적인 기능으로는 수집, 보존, 연구, 전시, 교육으로 분류할 수 있다.

“수집 활동은 오늘날의 박물관·미술관이 만들어지게 된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문화적, 교육적, 예술적 가치가 있거나 관람자에게 전시의 대상이 되는 미술작품을 수집하는 기능을 말한다.

보존 기능은 문화유산으로서 수집, 보관된 미술품을 후세를 위해 보존하는 기능을 말한다. 보존 기능은 전시품의 전시와 보존에 있어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정확하면서도 일관성 있게 여러 가지 자료를 기록하고 체계화 하여 수집기능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기능으로 후세의 사회적 공헌에 미술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연구 기능이란 박물관·미술관 소장품과 프로그램을 검증하고 이들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박물관·미술관의 학예 연구원들과 박물관·미술관에 관련된 학자들이 연구하는 기능을 말한다.

박물관·미술관 에서는 소장품, 프로그램과 같은 내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외부적 요인으로써 박물관·미술관 관람객 세대연구 등을 분석한다. 또한 박물관·미술관의 모든 기능은 교육을 통해 재평가함으로써 소장품과 프로그램에 생기를 불어넣고 미술관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전시기능은 작가와 또는 작품과 관람자와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기능으로 현재 박물관·미술관 기능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작품을 설치 진열하여 일반관람자들에게 보여 주며, 전시실이라는 특정한 환경 속에서 시대 순으로 혹은 양식, 주제별로 연결 되어지는 일련의 작품 배열을 통해 전시가 이루어진다.

교육기능은 근대에 오면서 박물관·미술관에 미술품을 보관하는 곳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닌 보존, 연구, 수집이 가능한 전문 인력양성 교육과 일반대중과의 꾸준한 소통을 하기 위한 곳으로의 새로운 기능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기능들은 대중의 문화적, 역사적 의식을 교육하고 참여하는 기능이

된다.<sup>4)</sup> 다시 말하면, 작품을 수집, 보존하여 조사연구, 전시 기획하여 사람들에게 보임으로써 사회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중요하게 여겨지며, 이러한 사회 연구기관의 발전과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교육적 기능이 뒷받침 되어야 함을 인식할 수 있다.

박물관·미술관 교육은 일반적으로 지식을 배우는 교육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관람객이 전시와 소장품을 이해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통합교육활동으로 넓은 의미로의 해석이 가능하다.

“소장품 전시, 전시기획, 교육프로그램, 특별행사 등과 같은 교육적 목적을 가진 여러 활동을 포괄한다. 박물관·미술관의 교육적 역할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그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이다.”<sup>5)</sup>

“박물관·미술관 교육은 전시실에서 관람객이 적극적으로 전시품을 관찰하고 감상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관람객에게 전시품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사회적 기관으로서 또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육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sup>6)</sup>

박물관·미술관은 사회 교육기관으로서의 박물관·미술관이 참여자의 참된 교육의 장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나아가 문화예술교육의 중심으로 발전적 면모를 가진다. 이전의 박물관·미술관 교육은 전문가와 엘리트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여 고급 미술 교육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었으나, 점차적으로 박물관·미술관이 사회적 기관으로써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공공성, 비영리성을 기반으로 한 박물관·미술관교육이 자리 잡게 되었다.

박물관·미술관 교육은 관람자에게 미적 체험은 물론 과거와 현재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하여 교육적이며 감동적인 즐거움을 제공하는 곳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우리가 행하여 왔던 박물관·미술교육은 기능성과 창의성이 강조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부터는 이해 중심의 교육이 자리 잡게 되고, 이후 높은 수준의 작품해석, 역사성, 예술성을 이해하기 위해 박물관·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이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되었다. 박물관·미술관은 단순히 전시 중심의 활동에서

4) 이경민(2010),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 개선방안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pp.3~5.

5) 장문정(2008),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p.16.

6) 백령 (2004), 「미술관 교육의 이론과 실제 - 국립현대미술관의 청소년을 위한 현대미술체험교실」, 미술교육논총 제18월1호, p.227.

벗어나 미술문화에 대한 이해의 장을 키워주는 곳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박물관·미술관은 전시, 소장품과 연계된 교육적 기능 이외에도 참여자에게 박물관·미술관의 역할과 목적을 알려 박물관·미술관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sup>7)</sup> 1989년 개정된 국제박물관 협회(ICOM) 제2조(정의)에서는 박물관·미술관을 “박물관은 인류와 인류 환경의 물적 증거를 연구, 교육, 향유할 목적으로 이를 수집, 보존, 조사연구, 상호교류(교육, 전시)하는 비영리적이며 항구적인 기관으로서 대중에게 개방되어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라는 규정하여 박물관·미술관을 위한 올바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박물관·미술관에 있어 박물관·미술관 교육의 기능은 수집, 보존, 전시 등에 연구과정의 목적과 사회 교육 기관으로의 목적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물관·미술관 교육의 기능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보면 이러한 요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박물관·미술관 교육은 박물관·미술품의 수집, 보존과 역사적 재평가를 위한 연구기능이 있다.

둘째, 대중들을 위한 문화예술의 교육기능으로 나누어보았다.

박물관·미술관교육에 있어 연구기능이란 박물관·미술관 소장품과 미술관 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양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박물관·미술관의 학예 연구원들과 미술관에 관련된 학자들의 교육을 의미하며 작품에 대한 예술성, 역사성을 연구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들의 연구는 학예연구원의 재교육이나 보존에 국한된 것이 아닌 미술관 소장품의 내부적, 외부적인 환경의 연구와 미술품이 내포하는 그 시대의 역사성의 연구, 보존 또한 내포하여 연구의 대상으로 보는 기능이라 할 수 있고 문화예술의 성장과 후세에도 영향을 주는 재평가의 연구기능이다. 또한 교육기능은 오늘날에 오면서 더욱 강조되는 기능으로 문화적, 역사적 의식을 교육한다는 이념 아래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대개의 박물관·미술관에서는 전시 이외의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거나 슬라이드 상영, 강연회 등의 이론 교육 프로그램과 실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각적인 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오늘날의 박물관·미술관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는바, 이러한 박물관

7) 국립현대미술관(2006), 「국립현대미술관 연보 2005」, 서울:국립현대미술관, p.83.



관·미술관의 교육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대중에게 열린 문화의 장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와 같이 박물관·미술관 교육은 박물관·미술관의 다양한 방문객의 욕구와 흥미를 인식하고, 박물관·미술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한 박물관·미술관의 자원, 환경과의 관계를 통한 연구 기능과 미적 성장을 촉진하는 교육기능 모두가 적절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오늘날 현대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박물관·미술관 견학을 적극권장 하고 있으며, 교과서의 많은 부분들에서도 박물관·미술관의 자료들이 참고 작품으로 수록되어 있다.

“박물관·미술관의 고유한 특징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유용한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sup>8)</sup> 박물관·미술관을 교육장소로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무안하다. 학생들의 작품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며, 미술 수업에서 실행될 수 없는 교육과정의 다양한 접근이 가능해진다. 또한 작품의 이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작품을 통한 역사성, 감수성 등의 문화 향유가 가능해진다.

“박물관·미술관 교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뉴욕 현대미술관의 건립과 함께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경향이 높다. 미국의 미술교육은 미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업고 특유의 미국적인 사고에서 시작되었다. 박물관·미술관 교육은 1900년대에 오면서 미국식 교육방법으로 기초를 마련하고, 1935년 현대적 커리큘럼을 정립하여 다양한 재료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각 특징을 살리는 교육으로 발전된다”<sup>9)</sup> 미술교과영역에서도 1970년 이후부터 감상영역이 높은 비중의 영역으로 인식되며 학교수업으로만 지식이 전달된다는 방법론에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다.

박물관·미술관교육의 변화를 보면 박물관·미술관에서 미술관 교육이 차지하는 가치적 배경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8) 이원영(1997), 「미국 박물관 교육의 현황과 그 교육적 의의-박물관의 문화 교육적 기능, 서울:예담, pp.1~2.

9) 김형숙 (2001), 「미술관과 소통」, 서울:예경, pp.60~62.

### Ⅲ. 제주도내 박물관·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실태조사

박물관·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의 유형을 구분하고, 교육 대상별 분류를 통해 국내 박물관·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의 종류를 파악하였다. 또한 제주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박물관·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의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 1. 교육프로그램의 유형

##### 1) 박물관·미술관 교육의 요소

미술관 교육의 요소는 1989년 엘리 부르동 캐스톤(Elle bourdon caston)에 의해 “미술관적 요소(museum component), 교육적 요소(education component) 그리고 주제적 요소(subject are component)로 구분되었다”.<sup>10)</sup>

또 이들 세 요소는 미술관의 목적과 기능의 미술관적 요소, 대상에게 어울리는 교육의 방법을 기획 운영하는 교육의 요소로, 교육 대상의 연구를 주제적 요소로 구성 하였다. 양질의 미술관 교육이 기획되기 위해 프로그램 기획자는 미술관의 특성, 미술관 교육의 유형과 요소들, 즉 미술관적 요소(전시중심), 주제적 요소(대상중심), 교육학적 요소(동기부여)로 이해하고 기획해야 한다.

##### 2) 박물관·미술관 교육의 유형

박물관은 특성, 연령, 집단, 사건, 형식에 따라 구분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성상 구분으로는 아카데미 형식의 독립 강좌, 특별행사, 전시 중심의 교육, 전시 관련 교육, 학교 관련 교육(학제 연계, 교과 연계)등이 있다. 연령별로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등으로 구분된다. “집단은 개인, 가족을 포함한 단체, 전문가와 일반 성인, 장애인이 속한다. 형식적 구분은 전시 중심의 안내와 설명, 오디오 가이드, 갤러리 토크, 활동지, 전시 관련 강의, 강연, 강

10) 백령(2005), 「멀티미디어 시대의 박물관 교육」, 예경, p.88.

좌, 세미나, 심포지엄, 공방 방문, 다양한 표현의 창작 활동이 있다. 미술관 외부로 확장되는 순회 전시, 학교 대여, 지역 도서프로그램등과 정보 센터, 인터넷 가상 프로그램과 교육용 교재 등이 있다”.11) 일반적으로 박물관·미술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실시 장소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다.

<표 1> 박물관·미술관 프로그램의 분류

구 분		내 용		
OFF line	관 내	성 격	교양교육, 전문교육, 특별교육, 특별봉사교육	
		대 상	나이별	유아/어린이/청소년/성인/노인
			집단별	개인/집단(일반단체, 학생단체)
				전문가(미술가, 학자, 교사, 인턴쉽, 도슨트)
				가족
	장애인(청각, 시각장애인)			
	시 간	정기적/비정기적		
	형 식	감상 - 전시안내, 갤러리토크, 워크시트, 오디오가이드, 비디오상영		
		이론 - 강연, 강좌, 세미나, 심포지엄		
		표현 - 워크샵, 미술실기, 글짓기, 연구역할 놀이		
		통합 - 감상과 제작, 체험교실, 박물관 학교		
		특별행사 - 행사, 공연(음악회, 연극, 무용공연)영화상영, 패션쇼		
	관 외	형 식	순회전시	
학교 대여 서비스				
학교 연계프로그램				
답사프로그램				
지 역	도시, 농촌, 어촌, 산간, 도서프로그램			
on line	가 상	형 식	정보센터	
			인터넷 전시, 가상 프로그램	
			교육용 프로그램	

출처 : 박휘락(2003), 「미술감상과 미술비평교육」, 서울 : 시공사, p.353.

11) 백령(2005), 「멀티미디어 시대의 박물관 교육」, 예경, pp.120~124.

<표 1>을 살펴보면, 미술관 교육은 오프라인(OFF line)교육과 온라인(on line) 교육으로 분류된다. 오프라인(OFF line) 교육을 보면 관내 교육과 관외 교육으로 분류 할 수 있는데, 관내 교육은 강연이나 강좌, 세미나 등의 강의식 프로그램과 전시에 대한 안내 및 해석, 전시실 설명 위주의 워크숍 등으로 구성되며 관외 교육은 순회전시나 학교 연계프로그램, 답사프로그램, 지역행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술관의 관람객을 대상별로 분류하면 일반인프로그램, 청소년프로그램, 어린이 프로그램, 주부강좌, 노약자프로그램, 가족프로그램, 학교연계프로그램, 장애인 프로그램 등으로 분류된다. 또한 박물관·미술관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으로 전문가프로그램과 자원봉사자 양성프로그램이 있고, 지역 및 환경에 맞추어 구성된 교육프로그램들도 있으며 도시, 농촌, 어촌, 산간, 도서 프로그램들도 있다.

박물관·미술관 교육의 온라인(on line) 교육은 인터넷 전시, 교육용 가상 프로그램, 미술관 정보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미술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인터넷전시, 박물관·미술관 교육프로그램 등의 정보공유와 박물관·미술관 정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오프라인 교육의 보조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박물관·미술관 교육의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 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교육프로그램을 교육성격, 대상, 시간, 형식, 지역 등에 의해 크게 구분됨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 대상의 구분에 의한 박물관·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이 가장 활발하게 실행되고 있다.

국내 박물관·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엄마랑 나랑], [어린이 미술탐험], [우리가족 미술여행], 을 진행하였고,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시니어 미술 강좌]를 진행하였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행되고 있는 [일반인 교양강좌]가 있다. 국립 중앙박물관에서는 [박물관 특별강좌], [여성문화 교실], [초.중등교사 문화연수], [토요문화체험교실]등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등 계층별 강좌로 구분되어 실시하고 있으며, 이밖에 [도자교실], [전통염색 교실] 등 체험을 통한 실기강좌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국내미술관 교육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연령을 고려한 구분으로 계층별 프로그램이 주된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유형 분류 및 내용

교육 영역	교육 내용
전시안내	전시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와 오리엔테이션 해설 등 활동으로 사전교육을 받은 도슨트를 활용하기도 한다.
전시설명회	전시기간 내 일정시간에 전시장 안에서 작품에 대한 해설을 제공한다.
강좌, 강연	강사가 이론 및 기타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정기 강좌와 특별 강좌가 있다.
심포지움	특별하고 지적 주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대상으로 여러 명이 발표하는 형태로 특별전시와 연계된 일회성 행사이다.
워크샵	심포지움 보다 소규모이며 참가자와 상호작용이 많다.
현장학습	실습, 문화 탐방 등의 내용으로 박물관에서는 발굴현장의 유적지탐방을 한다.
오디오 가이드	전시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전달하면서 감상할 수 있도록 카세트 플레이어나 mp3 기기를 활용한다.
비디오 프로그램	박물관, 미술관에 대한 소개, 프로그램 안내, 작품 및 작가의 삶 등에 관해 수록하여 전시감상에 대한 안내를 한다.
학교연수 프로그램	박물관 미술관의 소장품이나 전시와 관련하여 학교 교육과 연계한다. 소극적 방법으로는 교사에게 전시도록, 워크시트(worksheets), 비디오 등의 교육 자료를 지원하거나 학교 유물 대여서비스를 제공한다. 적극적 방법으로는 박물관 미술관과 협업하여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술을 운영한다.
교사 연구프로그램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일선 교육 현장의 교사들에게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움직이는 미술관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서 전시회를 진행하거나 관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술을 시행한다.
가족 프로그램	가족 단위가 함께 전시 및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는 이벤트 형식으로 박물관 미술관의 다양한 관람계층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된다.
어린이 프로그램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단순 실기뿐만 아니라 감상, 창작, 비평 교육을 함께 진행한다.

장애인 프로그램	대표적 소외 계층인 장애인의 문화예술 경험을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다.
인턴쉽 프로그램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박물관 미술관에 종사한 예비 인력을 양성하는 인턴쉽 프로그램이나 박물관 미술관을 대중에게 개방하고 생활 속의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있다.

출처 : 김희진(20002), “국내의 어린이 대상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 현황 비교 분석”,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p.9.

<표 2>는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의 유형을 구분하여 교육 내용을 분류한 표이다. 현재 국내 미술관에서 실시되어진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이며, 대부분이 미술관 관내에서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물관·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유형을 대상별로 나누어 본 결과, 연령별, 관심별, 시간의 활용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 교사, 장애인, 일반인, 노인, 전문인 등을 대상으로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을 구분할 수 있으며, 미술관에서의 전시연계, 행사, 이론강의와 미술 실기과정의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어린이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현재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는 학교 교육의 미술교육을 돕는 정도의 보조 역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 (1) 박물관·미술관의 미술교육

##### 가. 박물관·미술관의 미술 교육의 목적

전시와 이용객을 연결하는 소통의 기능을 하는 박물관·미술관의 미술 교육 프로그램은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는 독특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교육으로, 미술관 교육의 목적은 설명, 해설중심의 학습처럼 전시물에 대한 이용객의 이해를 최대화 하는 것, 구성주의적 학습처럼 전시와 관련하여 새로운 지식과 의미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미술품과의 접촉과 해석의 체험을 통해 감성적 성장을 제공하며, 이용객은 미술품 체험을 보다 전문적인 미술의 지식과 정보는 물론 새로운 해석을 통해 시대와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박물관 미술관의 미술교육은 이용객 스스로의 자

발적 동기로 참여하므로, 기획하는 프로그램은 전시와 이용객의 특수성과 독창성을 반영해야 한다”.<sup>12)</sup>

또한 미술품과의 공간이 함께 이해 될 수 있어야 한다. 미술관의 공간은 관람자의 경험과 기억에 영향을 주어 감상을 유도하는 동기부여를 하게 된다. 이용객에게 미술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미술관에서 직접 미술품을 접하여 보고 알고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 나. 박물관·미술관의 미술교육 프로그램

설정된 목표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목적의 단위로 구성이 되는데 이단위의 수업·학습(lesson)을 개발 하는 것이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이다. 어느 교육 활동과 마찬가지로 박물관·미술관의 미술교육 역시 학습의 목표, 활동(결과물), 평가로 나누어진다. 학습의 목표는 미술관이 지향하는 교육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하며 각 학습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지향으로 교육대상의 신체적 조건이나 학습능력 등에 따른 발달학적 목표와 교육 내용을 따라야 한다. 활동은 학습을 통해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이다. 박물관, 미술관의 체험은 전시관람으로부터 시작하므로 전시를 감상하는 것부터 강의, 창작(제작), 등 학습 목표에 부합되는 연속 활동이다. 미술전시는 작가가 각각의 전시품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 의도와 학예사의 전시기획 의도에 따라 기획된다. “미술관의 주된 체험은 전시실에서의 관찰과 감상이며 감상의 결과물을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 중 하나가 창작 활동이다. 이러한 창작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경험, 발달단계, 사고력 등을 고려하여 기획해야 하며, 교육적 가치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과정과 효과에 대한 평가 역시 중요하다”.<sup>13)</sup>

#### (2) 학교의 미술 교육

“1955년 1차 교육과정이 시작된 이후 여섯 번의 전면 개정 과정을 거쳐 2003년 8월 현재 7차 교육과정이 시행·적용 중이다”.<sup>14)</sup> 미술과 교육과정은 21세기 국제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대처할 필요성 강조하고,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교육에 충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제화, 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능력의 신장과 학생

12) 박신의(2004), 「현대사회와 미술관의 기능」, 과천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학 강좌, p.10.

13) 김성원(2002), 「현지 미술관 큐레이터」, 문화예술경영 이론과 실제, 서울생각의나무, p.10.

14) 진동섭의공저(2005), 「한국 학교조직 탐구」, 서울 학지사, p.65.

의 능력, 적성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실천, 지역 및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삼고있다. 교과활동, 재량활동, 특별활동을 통하여 미술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다음 내용과 같다.

가. “교과활동 - 국내 교과과정의 전 과정은 문화예술교육의 접목이 특징이다. 교과시간을 이용한 문화예술교육은 예술교육 과목시간인 예체능 과목뿐만 아니라 예술과목 이외의 교과과정 시간의 분석 및 재구성을 통한 통합 교과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는 미술시간을 통해 찰흙으로 여러 작품을 만들 수 있고 타 과목의과정 속에 찰흙을 이용한 내용 구성들이 포함 되어 있어 미술적 도구를 통한 통합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sup>15)</sup>

나. “특별활동과정 - 학교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교과학습 활동 이외의 학교교육 활동인 특별활동을 통하여 박물관·미술관 현장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학생과 교사가 주제선정 및 활동장소와 시간 그리고 방법에 이루어지는데 학생과 교사가 주제선정 및 활동장소와 시간 그리고 방법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징과 개인의 적성이나 소질을 발견하고 신장하는데 기여하고, 자유로운 집단 활동을 통하여 협동심, 자주성, 책임감 등 민주시민의 자질을 형성하는데 그 의의를 가지는 것에서 박물관·미술관 교육을 통한 미술교육의 목적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별활동을 통한 미술교육 시스템은 활동의 계획, 조직, 운영, 평가가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활동에 이해 이루어져야 하고 교사는 가능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한다.

다. 재량활동과정 - 재량활동은 국가공통의 교육과정에 편제에 제시되지 않은 교육활동도 학교에 자율적인 재량권을 부여 하고 편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지역사회와 학생의 요구, 학교의 특수성, 교사의 교육관에 따라 학교 나름대로 특색있는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있으므로 학교장과 담임교사의 재량에 따라 문화예술 교육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시간이다”.<sup>16)</sup> 미술교육은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1996년 2학기 때부터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활용한다는 목적을 시행되어 1999년에 ‘방과 후 특기적성 개발활동’ 으로 개칭되면서 각 학교에 특활부장을 두고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5) 백령(2006), 전게서, p.59.

16) 문화관광부(2000), 전게서, p.20.



### 3) 박물관·미술관의 미술교육의 필요성

미술교육은 실제 경험을 중심으로 한 창작활동을 통해 미술품을 제작하고, 감상활동을 통해 언어논리 능력을 키우고, 감상교육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데 교육적 가치가 있으며 이러한 미술교육의 범위안에 박물관·미술관 교육이 있다.

박물관·미술관을 통한 미술교육은 전시품 체험을 통해 전시의 주제와 전시품에 대한 지식정보를 얻으며, 미를 통해 잠재되어 있던 과거의 지식과 연결지어 역사, 과학, 미술의 이야기를 새로이 구성하고 이해하는 논리적 인지와 상상력 확정의 기회를 이용객에게 제공한다.

“박물관·미술관 교육은 ‘전시’라는 기호화된 이야기를 다양한 접근방법과 과정을 통해 이용객에게 전시의 이야기, 메시지로 전달하는 활동으로 이용객에게 지식과 해석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시이해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 지며 창작과 감상의 미술활동은 참여자들에게 자아인식을 경험하게 하여 창작활동을 하는동안 참여자들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자아를 발견하고 활동에 몰입할 수 있게 된다”.<sup>17)</sup> 참여자들은 스스로에게 일어난 자그마한 발견을 함께 활동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나눔으로써, 미술창작을 통한 또 하나의 발견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미술 활동은 결과물인 작품뿐만 아니라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해주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과 이해, 그리고 나를 표현하는 방법을 찾게 해 준다”.<sup>18)</sup>

#### (1)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은 유치원 학생들과 초등학생들이 미술관의 소장품을 감상하고 문화적 정서를 함양하는 의미를 가진 교육프로그램이다.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은 작품감상, 작품이해 평가 등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미술교육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미술교육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어린이 미술관 설명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들의 감수성 및 기호를 고려해 아름답고 친근한 느낌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어린이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미술의

17) 윤종건(2002), 「창의력 길잡이」, 서울 원미사, pp.29~30.

18) 변자정(2007), “국내외 미술관 및 박물관 미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학위논문, p.6.

미적원리와 조형원리 탐구”<sup>19)</sup> 라고 설명되어 있다. 미술관을 찾는 학생들에게 미적정서와 창의성 개발이라는 학습목적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참고자료를 준비하여 아이들의 시각적 경험과 자유로운 미적세계를 열어주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 국·공립미술에는 대부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어린이박물관은 교육프로그램 [책 읽어주는 박물관], [박물관 퀴즈왕], [Hello 박물관!] 등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박물관을 두어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고 있으며,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어린이 방과 후 미술교실]을 두어 1년 동안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어린이 미술관 전시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전시와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 (2)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미래의 문화, 예술 참여인구의 확산이라는 미술관 교육의 기능적 측면에서 개발되었으며 입시 준비로 바쁜 학생들이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현 교육 상황을 벗어나 실제로 체험해보는 태도를 함양해 봄으로서 인성교육에 있어 중요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청소년 교육은 모든 미술관에서 계획되어 시행하여야겠지만 현재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등이 기관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공립에서 청소년을 집중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의 확대를 계획함에 있어 특별히 학교교육과의 연계성과 미술과 생활, 창의적인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좀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이며 앞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 갈 꿈나무로 어릴적부터 작품을 통한 역사성을 고취시키고, 풍부한 감수성을 이끌어 내어 차세대 주역이 될 수 있는 이들에게 문화·예술 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그 교육의 장으로서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의 역할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겠다.

### (3) 일반인 교육프로그램

관람자들이 전시물이나 작품을 감상을 통해 문화를 향유하면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얻어가며, 경험에서 오는 배움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양교육으로의 일환이다. 국립중앙

19) 국립현대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oca.go.kr>.

박물관에서 [우리박물관 문화재 보존교실]은 문화재의 보존과 복원을 다루며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환경적 조건을 배우며 직접문화재를 경험하는 실습을 통하여 일반인들의 교육을 돕고있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한낮의 미술교실], [서양미술사], [주부수채화 실기], [주부유화실기], [영화와 미술] 등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일반인의 교양 강조로 발전시키고 있다. 일반인은 교육에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들과 다르게 지식습득을 목적으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다. 일반인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의 교육내용에 있어 일반인의 관심사와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 (4) 가족교육 프로그램

“온가족이 휴일이나 주말에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 형식의 프로그램으로서 어린이를 동반한 부모들이 함께 가족 단위별로 참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 프로그램은 다양한 관람객 계층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sup>20)</sup>

미술관의 대표적 가족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국립중앙박물관 가족프로그램 [우리는 고고학자 가족], [지도속 숨 쉬는 역사이야기], [박물관 백년의 비밀] 등이 있으며, 리움미술관의 [우리가족의 미술관 건축 탐험], [미술관 비평], [나와역사] 등이 교육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현재 가족프로그램은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리움미술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조차도 어린이 미술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짜여 있는 것이 전부였다. 가족 프로그램이 이렇게 미비한 것은 다양한 계층을 수용하지 못하는 미술관의 교육 편중과 여러 가지 시설, 예산 부족을 들 수 있다. 어린이들을 동반한 가족들 참여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가족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 (5)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

학교 교육과의 연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술관의 소장품이나 전시와 관련하여 학교 연계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술관과 학교와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형식적이고 조직적인 학교 수업과는 달리 미술관 학습은 형식적이지 않아 자유롭고, 질 높은 정보와 발견, 도전, 즐거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학습동기를 유발

20) 국립현대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oca.go.kr>

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학급 이상이나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못하는 미술관들은 교사들에게 슬라이드, 비디오 매체와 같은 교육용 자료를 지원하거나, 학교에 유물 대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학교 미술교육에 미술관이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6) 장애인 교육프로그램

자발적으로 박물관을 관람하기 어려운 신체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누구에게나 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는 수화 통역 전시 설명회를 제공하고,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는 점자로 텍스트나 레이블을 별도로 제작하여 미술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휠체어를 박물관 입구에 비치하여 장애인과 움직임이 불편한 관람객에게 전시관람이 쉽도록 배려한다.

“국내의 국·공립 미술관들 중 국립현대미술관과 서울시립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에서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국내의 장애인 대상 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차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의 각 미술관들은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교육프로그램 뿐만 아닌 미술관의 여러 행사 참여의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sup>21)</sup>

#### (7) 전문가교육 프로그램

학문적 탐구를 위해서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미술이론의 학술적 연구를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미술의 이론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 중 대표적으로는 교사연수 프로그램과 큐레이터 인턴쉽 프로그램, 도슨트 프로그램을 예로 들 수 있다.

“교사 연수 프로그램은 초·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일선 교육현장에서 미술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미술이론과 실기를 포함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교사들의 교육지도 능력 향상과 바람직한 미술 문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하여 전문인의 재교육으로의 발전을 가진다”.<sup>22)</sup> 또한 큐레이터 인턴쉽 프로그램과 도슨트 프로그

21) 손지영(2005), “미술관의 미술교육프로그램 실태 연구-국·공립미술관중심으로”,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 p.29.

22) 조지현(2003), “현행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실태 조사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 p.12.

램은 점차 전문화, 세분화되는 현대사회에서의 미술관 전문직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문성 향상위해 운영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동일분야 종사자들 간의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형성을 기여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이다.

현재 많은 미술관에서 전문가 교육프로그램으로 전문가 프로그램 과정을 증설하고 계획함에 있어 미술관의 전문 인력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체험하게 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2. 제주도내 박물관·미술관 교육프로그램 현황

본 장에서는 제주도내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의 현황조사를 하였으며, 초·중·고 학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제주지역 내 국·공립 박물관 2곳과 미술관 2곳을 조사하였다.

제주도내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중 대표적인 ‘국립제주박물관’과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의 프로그램 내용을 조사하였다.

### 1)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은 제주시 사라봉공원 부근에 제주 전통민가 형상으로 지어져 제주의 토착 역사·문화를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전시하는 고고·역사박물관으로 2001년 6월 15일 개관하였다. 대지 5만 572㎡, 연건평 9,287㎡,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에 2511건 7231점의 유물이 소장되어 있으며, 개방적인 해양문화와 제주 문화의 형성과정을 문화사 발전단계 별로 볼 수 있도록 대공간전시실, 선사고대실, 탐라실, 조선시대실, 기증실, 기획전시실, 야외전시장 등으로 구성되었다.

전시실 입구 대공간전시실에는 제주읍성 축소모형을 설치해 놓아 제주의 성곽, 건물, 민속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선사고대실에서는 고산리 출토석기, 북촌리·상모리유적 출토품, 삼양동유적 출토유물과 대단위 취락모형 등을 통해 제주의 자연환경과 선사문화가 전개·발전되어 온 과정을 볼 수 있다.

탐라실에서는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 동안 발전한 제주 탐라문화의 형성과 발전, 고려시대의 제주관련 유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광지리 유적 출토품, 용담동 선사무덤유적, 고내리유적, 신창리 해저유적과 제주의 불교유물, 탐라의 옛 지도 등이 전시되어 있다.

조선시대실에서는 제주목(濟州牧)을 비롯해 삼읍체제가 이루어지는 조선에서 근대까지의 제주모습을 볼 수 있다. 이곳에는 제주목관아지(사적 380) 출토품과 제주의 인물, 유배인과 학문, 생활자료, 회화류, 제주관련 서양자료 등 관련유물 350여 점과 하멜 표류와 관련된 유물이 있다.

기증실에서는 ‘김순이’가 기증한 도자기, 목가구, 의상 등 50여 점이 있으며, 기획전시실에서는 제주의 역사, 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특별전시를 하고있

다. 야외전시장에 전시된 돌하르방, 동자석, 정낭 등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유물 100점은 직접 만져볼 수도 있어 일반인과, 아동들이 보다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비치되어 있다.

국립제주박물관은 주변에 사라봉공원, 사라봉장수산책로, 삼성혈,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 등이 인접해 있고 사람들의 왕래가 번번하여 보다 쉽고, 편하게 다양한 제주문화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 (1) 국립제주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국립제주박물관은 제주도에서 가장 큰 박물관이라 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별로 연령대를 지정하여 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획해 놓았다.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연계프로그램, ‘어린이와 꿈 나누기, 행복충전소’, ‘박물관 호기심 천국’, ‘제1기 어린이 박물관 학교’, ‘박물관 보물찾기’ 등의 교육내용을 위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도내 어린이들을 위하여 어린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고, 보고만드는 체험세상은 전시실 안내데스크 옆에 위치해 있으며, 전시유물과 관련 내용을 탁본, 목판인쇄 등을 체험 할 수 있는 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다. 이밖에도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지역의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 가. [어린이] ‘특별전 연계 프로그램’

[어린이] 특별전 연계 프로그램은 아직은 어려서 전시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하며 해석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체험활동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선생님과 함께 설명도 듣고, 대화를 나누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기억되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고 끝나는 전시회가 아닌 듣고, 느끼며, 체험하는 교육을 권장하는 프로그램이다.

<표 3> [어린이] ‘특별전 연계프로그램’

접수기간	프로그램명
2010. 01. 26 ~ 2010. 02. 08	[2월9일] 꼬마보존과학자 ! (종이복원편)
2010. 01. 19 ~ 2010. 01. 25	[1월26일] 꼬마보존과학자 ! (토끼복원편)

출처 : 국립제주박물관 홈페이지 <http://jeju.museum.go.kr/kr>

<표 3>의 프로그램의 목적은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의 새로움의 탄생을 배우고, 숨겨졌던 박물관 속 직업 탐색의 시간으로써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6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유물보존 과정을 알아보고 직접 접해보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오래된 그림이나 유물을 복원하는 작업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중요한 만큼 아직은 어린이들에게 생소한 단어이기는 하나 교육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복원과정을 알려줌으로써, 옛 작품들이 어떻게 복원되어서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전시되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실감하게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은 박물관·미술관에 전시된 작품들이 어떻게 아직까지 잘 보존되어서 보여지는지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유물이나 작품을 보존하기 위해선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판단된다.

#### 나. [어린이] ‘어린이와 꿈 나누기, 행복충전소’

[어린이] ‘어린이와 꿈나누기, 행복충전소’의 교육프로그램은 유물 속 문양을 찾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어린이들에게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옆에서 학부모와 선생님의 큰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린이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올바른 가르침을 통한 <표 4>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 이를 바탕으로 많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 4> [어린이] ‘어린이와 꿈 나누기, 행복충전소’ 프로그램

접수기간	프로그램명
2010. 03. 14 ~ 2011. 12. 31	어린이와 꿈 나누기, 행복충전소
2010. 03. 14 ~ 2011. 11. 30	어린이와 꿈 나누기, 행복충전소

출처 : 국립제주박물관 홈페이지 <http://jeju.museum.go.kr/kr>

어린이들에게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옆에서 학부모와 선생님의 큰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린이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올바른 가르침을 통한 <표 4>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 이를 바탕으로 많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프로그램은 세 개의 파트로 나누어져서, 이론과 전시실탐험 그리고 체험활동으로 나뉘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이론]에서는 문양의 종류와 의미를 알아볼 수 있다.

[전시실탐험] ‘유물 속 문양을 찾아라’에서는 [체험활동] 문양을 활용한 도자기 페인팅! 이라는 주제로 운영 되었으며, 이론과, 전시탐험, 체험활동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좀더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에 대해 쉽게 이해되고 기억될 수 있는 것에 목적을 두고있다.

교육프로그램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단체, 지역복지사업, 교육복지사업 참여단체 (30명 이내)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어졌다.

저소득층 어린이들과, 복지시설 단체를 위하여 실행되고 있는 이 교육프로그램은 바쁜 맞벌이 생활로 인해서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는 부모님 때문에 집에만 있어야 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루어진 교육프로그램이다.

이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인해서, 어린이들에게는 주제만큼이나 꿈을 나눌 수 있고,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본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문화재의 소재로 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조상들의 지혜와 슬기를 익히고 우리의 문화

유산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4> 프로그램을 통해 박물관·미술관이 새로운 문화 창조의 밑거름이 되는 배움의 장소로 재미있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인식전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유치원 단체] ‘박물관 호기심천국’

[유치원 단체] ‘박물관 호기심천국’ 프로그램은 유치원에서 견학을 오는 단체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그림이나 사진으로만 보는 ‘우리 옷’을 좀 더 자세하게 실제로 접함으로써 보다 쉽게 이해되게 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하였다.

<표 5> [유치원 단체] ‘박물관 호기심 천국’ 프로그램

접수기간	프로그램명
2010. 03. 14 ~ 2010. 12. 31	박물관 호기심천국
2010. 03. 14 ~ 2010. 11. 30	박물관 호기심천국

출처 : 국립제주박물관 <http://jeju.museum.go.kr/kr>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이들은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부모나, 선생님들에게 항상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다닌다. 그러한 궁금증 해소와, 박물관에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 <표 5>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유치원 단체, 어린이들을 위해서 ‘박물관 호기심천국’ 이라는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졌다.

국립제주박물관은 유치원 단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우리 문화를 통해 창의력과 호기심, 상상력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참가대상은 6~7세 유치원 단체(40명 내외)로 운영되었고, 프로그램 내용은 ‘알록달록 우리 옷’ 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옷, 제주의 옷’, ‘아시아의 옷 들여다보기’ 프로그램과, 한복, 갈옷, 해너 복 콜라주 체험프로그램 및 소감발표를 마지막으로 진행이 되었다.

프로그램 수업이 끝나고서 소감발표 과정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서로 느낀 감상문을 공유함으로 감상학습 교육의 계기도 가질 수 있었다.

많은 유치원에서 행해지는 견학과정은 똑같은 전시물을 관람해야 하고, 똑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체험해야 하는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이 아닌, 매달마다 창의성 있게 바뀌어서 방문할 때마다 다른 느낌을 전달받고, 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으로써, 앞으로도 많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라. ‘제1기 어린이 박물관 학교’

<표 6>의 ‘어린이 박물관 학교’의 프로그램은 1달 동안 교육프로그램 내용을 체험하면서, 어린이들에게 박물관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진행될 수 있도록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제1기 제주어린이 박물관 학교를 개최한 프로그램이다.

<표 6> ‘제1기 어린이 박물관 학교’ 프로그램

접수기간	프로그램 명
2010. 03. 14 ~ 2011. 04. 01	[대기자접수] 제1기 어린이 박물관학교
2010. 03. 14 ~ 2011. 03. 24	제1기 어린이박물관학교 (상상 톡톡 박물관)

출처 : 국립제주박물관 <http://jeju.museum.go.kr/kr>

박물관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산교육의 장으로, 다양한 학습방법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어린이들의 시선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어린이 심화과정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Hello 박물관!’을 시작으로 ‘나를 나타내는 상징, 호패 만들기’를 통하여 옛날 호패의 중요성과 나만의 호패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게하였다.

‘화산섬, 제주의 신비’ 주제를 통해서는 이론공부를 마친 후, ‘모형 현무암 만들기’ 체험을 하는 시간을 갖게하여 이론공부와 체험학습을 병행함으로써, 어린이

들에게 좀 더 빠른 이해를 돕도록 하고 있었다. ‘자연에서 기술로’ 프로그램을 통한 이론수업으로는 선사시대 생활동구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체험수업으로는 ‘전복껍질 화살촉 만들기’를 체험학습하여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직접적인 경험을 어린이들이 눈으로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 보고, 만져봄으로써 어린이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탐라 다른문화와 만나다’ 라는 주제의 이론수업에서는 ‘바다를 건너온 문화 알아보기’, 체험수업으로는 ‘위신재, 재현하기’ 수업을 하였다.

또한, ‘고려, 믿음을 이야기 하다’ 라는 주제로 ‘불교 문화재 알아보기’ 이론 수업, 체험수업으로는 ‘탑을 재현하다’라는 주제로 탑을 재현해서 만들어보는 체험 수업을 하였다.

7월 달에는 ‘관련 유적지 답사/숨쉬는 그릇, 옹기 체험을 통해서 직접 책에 나오는 유적지에 가보기도 하고, 옹기만들기 체험을 통해서 옛 조상들의 얼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었다. 이렇듯 국립제주박물관에서는 모든 프로그램을 이론과, 체험을 같이 병행하면서 프로그램의 목적과 결과를 어린이들에게 잘 전달하고 있었다.

프로그램 과정 중 마지막으로 12월 7일 수료식을 통해서 1년 동안 박물관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점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통하여 그동안의 교육과정 중 경험한 내용을 다시 한번 고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린이들에게 알려주고, 느낄 수 있게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된다.

#### 마. [어린이] ‘박물관 보물찾기’

‘박물관 보물찾기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학년 ~ 3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제주 섬 문화와 관련된 역사, 문화, 이야기와 관련된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었다.

국립제주박물관에서는 매월 넷째주 토요일은 박물관 가는 날로 정해놓고 있으며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3월, 4월] ‘화산섬, 제주를 만나다 : 돌문화(석상만들기)’를 통해서 석상을 직접 만들어 보는 내용이었다.

<표 7> [어린이] ‘박물관 보물찾기’ 프로그램

접수기간	프로그램명
2010. 06. 20 ~ 2010. 06. 24	‘새로운 세상과 만나다’ (교류)
2010. 05. 23 ~ 2010. 05. 27	‘새로운 세상과 만나다’ (교류)

출처 : 국립제주박물관 <http://jeju.museum.go.kr/kr>

[5월, 6월]은 ‘새로운 세상과 만나다 : 교류(금동허리띠꾸미개 만들기)’를 주제로 운영이 되었다. [7월, 8월]은 ‘새로운 세상과 만나다 : 표류(표해록 만들기)’ 표해록에 대해서 이론적 설명을 듣고,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었다.

[9월, 10월] ‘상상 속의 이야기를 만나다 : 콜라주로 꾸며보는 이야기’라는 주제로 콜라주 기법을 통해서 상상속의 이야기를 만들어보는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11월, 12월] ‘상상 속 그림을 만나다’ 무신도 족자 그림표현하기’ 주제로 무신도의 작품을 알아보고 족자그림을 직접 표현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행하였다.

바. [가족] ‘박물관 나들이’

‘박물관 나들이’의 프로그램은 가족단위의 주말을 이용한 박물관 나들이 프로그램으로, ‘엄마 아빠와 박물관 나들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

<표 8> [가족] ‘박물관 나들이’ 프로그램

접수기간	프로그램명
2010.05.23 ~ 2011.05.27	숨쉬는 그릇, 옹기
2010.04.18 ~ 2011.04.22	숨쉬는 그릇, 옹기

출처 : 국립제주박물관 <http://jeju.museum.go.kr/kr>

<표 8>의 ‘박물관 나들이’ 프로그램은 생동하는 새봄, 새학기를 맞은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박물관 나들이 프로그램으로 주중의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과의 특별한 박물관 나들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초등학생 동반가족 (15가족)이 참여 가능하며,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3, 4, 5월) ‘숨쉬는 그릇, 옹기 : 미니허벅 만들기’ 프로그램이 있고, 다음 [6, 7, 8월] ‘감쪽같이 물들이고 시원한 여름나기’ : 어린이 바지 감물 염색 프로그램, [9, 10, 11월] 쪽빛 바다를 가르다 : 어린이 물옷 만들기 프로그램을 체험해 볼 수 있었다.

어린이들에게는 생소한 허벅을 직접 만들어 보고, 감물염색을 직접해봄으로써 염색이 되는 과정을 느낄 수 있으며, 어린이 물옷 만들기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주 전통 옹기문화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게 된다.

## (2) 국립제주박물관 문화프로그램

국립제주박물관은 2001년에 개관하여 각종 문화재와 모형을 전시하여 지역 조상들의 생활모습을 알 수 있는 대표적 박물관이다.

### 가. ‘박물관과 하나되기’

<표 9>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프로그램 내용 목록이다.

<표 9> ‘박물관과 하나되기’ 문화프로그램

일정	프로그램명	장르	공연단체	장소
3월 26일	아카펠라 그리고 레이저쇼	음악/퍼포먼스	다이아/PID	강당
4월 23일	‘기타로 오토바이 타자’	밴드공연	기타	강당
5월 28일	장난놀이 ‘안녕 핫도그’	뮤지컬	국악놀이 연구소	강당
6월 25일	‘아픔을 씻는 두드림’	음악	프라임 타악기앙상블	강당

출처 : 국립제주박물관 <http://jeju.museum.go.kr/kr>

#### 나. 토요일 박물관 산책

국립제주박물관에서는 문화공감 프로그램으로 ‘토요일박물관 산책’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토요일박물관 산책은 주 5일 근무로 인한 여가시간 확대 및 토요일 야간개장 연계 문화프로그램이다. 3월 ~ 10월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다채로운 공연, 강연, 영화 등을 즐길 수 있게 마련되어 있으며, 토요일 저녁! 아름다운 야간경관과 푸르른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온가족이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2010년 1월 ~ 12월, 동안 매주 토요일 18 : 00에 진행이 되었으며, 국립제주박물관 강당과, 전시실로비에서 진행이 되었다. 1. 2. 3. 5주는 영화상영이 있어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으며, 다음 4주에는 공연과 음악회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각 공연 특성에 따라 연령제한이 있었고, 토요일에는 가족과 연인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내용들이 박물관에서 제공되어지고 있었다.

#### 다. 특별공연 ‘가야금과 해금’ - 객석나눔 프로젝트

객석나눔 프로젝트는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의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연장의 일정 부분 좌석을 기부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외계층에서 문화를 즐길 수 없는 사람들에게 공연문화 공유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연구되어야 할 프로젝트라고 생각된다.

<표 10> 객석나눔 프로젝트 ‘가야금과 해금’ 연주 프로그램

일정	프로그램	장르	공연단체	장소
4월 9일	가야금과 해금	음악회	백제가야금연주단/ 해금:성의신	강당

출처 : 국립제주박물관 <http://jeju.museum.go.kr/kr>

<표 10>의 객석나눔 프로젝트는 ‘가야금과 해금’이라는 내용으로 우리나라 대표적 연주가를 초청해 공연한 내용이다.

‘가야금과 해금’ 공연관람 방법은 신분증 지참 후 국립제주박물관 강당으로 이동하여 국립제주박물관 카페테리아에서 티켓을 나눠주는 직원 분에게 ‘토요산책 객석나눔’이라 말하고 신원확인 후 티켓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비싼 입장료를 내야만 관람할 수 있는 공연이지만 이러한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박물관·미술관 문화종류의 기능을 실시한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객석나눔 프로젝트’ 같은 내용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다양한 계층의 대중들이 이용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 라.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영화감상 프로젝트

국립제주박물관에서는 무료로 대중들에게 영화를 상영하고 있었다. 오래된 영화에서부터 최근 개봉한 영화까지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에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주 일요일 상영하고 있었다.

<표 11> ‘가족과 함께하는 영화감상’ 프로그램

	주 제	일자	영 화 제 목
3 월	‘꽃피는봄 동화속으로 ...	5일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애니메이션/가족, 90분, 전체관람가)
		12일	코렐라인 : 비밀의문 (애니메이션/판타지, 100분, 전체관람가)
		19일	괴물들이사는 나라 (모험/드라마, 101분, 전체관람가)
4 월	‘이들의 우정이 부럽다’	2일	굿바이 마이프렌드(드라마/97분, 12세)
		9일	버터플라이
		16일	라디오스타 (드라마/코미디, 115분, 12세관람가)
		30일	굿바이 칠드런(드라마/104분, 12세 관람가)
5 월	다문화 ‘아름다움공존 I’	7일	세리와 하루(드라마/91분, 12세관람가)
		14일	우리학교 (드라마/다큐멘터리, 131분, 전체관람가)
		21일	히말라야, 바람이 머무는 곳 (드라마/96분, 12세관람가)
6 월	인권영화, 시대공감, 희망 을 찾는 우리들의 이야기	4일	날아라 펭귄(드라마/110분, 전체관람가)
		11일	호텔르완다(드라마/전장, 121분, 12세관람가)
		18일	세션 1318(드라마, 122분, 12세관람가)

출처 : 국립제주박물관 <http://jeju.museum.go.kr/kr>



<표 11>의 가족과 함께하는 ‘영화감상 프로젝트’는 대체적으로 가족 단위중심의 교육적 문화내용 및 다큐멘터리 등의 내용을 상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어린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없는 내용을 중심으로 상영함으로써 일상적인 TV관람에서 보다 넓은 계층과 공유할 수 있는 장소에서 관람함에 따라 공연문화 관람에 대한 시민의식 등을 어린이들이 직접 경험을 통해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주박물관에서는 6개월에 걸쳐 상영되는 영화를 홈페이지에 공지해 둬으로써, 관람하고 싶은 영화를 선택해서 그 날에 찾아가서 관람할 수 있는 편의도 제공하고 있었다.

#### 마. 설·추석맞이 전통놀이 한마당

‘설·추석맞이 전통놀이 한마당’은 민속최대의 명절인 설, 추석을 맞아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우리의 전통 세시풍속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명절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아가 모처럼만에 모인 가족들이 박물관에서 뜻 깊은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설과 추석 명절에 멀리 있는 친척들에게 찾아가지 못하는 가족이나, 혼자서 명절을 보내고 있는 대중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명절 날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전통세시 풍속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이처럼, 국립제주박물관에서는 주말과 휴일을 통해서 관람객에게 좀 더 많은 교육프로그램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지고 있었다. 어느 한 연령대에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 다양한 연령대에 관람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험 교육프로그램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홍보 역시 잘 이루어져서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박물관이 되었으면 한다.

#### 2)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에서는 학생들에게 참다운 인성과 상상력을 키우는 체험과 실천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교직원 및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특별한 주제의 강좌를 마련하여 평생학습관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한 기대효과로는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창의적 체험 탐방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제주어 말하기' 등의 분야별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특기를 신장시키며,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전통문화 및 세시풍속 체험의 기회가 주어졌으며, 다양한 주제의 명화감상으로 질 높은 문화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스페셜 강좌를 통하여 열린 세상을 꿈꾸는 평생학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제주교육박물관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전시실은 고대로부터 해방 이전까지 제주교육의 흐름을 '제주교육의 뿌리'라는 주제로 19개 코너에 전시하고 있었다.

전시코너별 자료로는 우선 홍화각기에서부터 제주도를 나타내는 고지도인 한라장축, 제주교육의 흐름을 개괄하여 보여주는 전시판넬과 고대로부터 해방이전까지의 제주교육의 역사를 도표로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고대의 제주교육과 탐라시대의 교육,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의 교육코너가 마련되어 있고, 서당을 재현한 제주 전통초가의 모습과 조선시대 국립교육기관인 향교의 모형도 전시되어 있다. 그리고 향교 관련자료와 영운공 고경준 선생의 유품, 조선시대의 사회교육, 제주도의 사학, 조선시대의 시취제도, 근대학교의 태동, 일제하의 식민지 교육 등 기구 및 도량형기구, 근대학교 태동 이후 학생상, 일제하의 민족교육 및 사회교육 총 528점이 전시되어 있다.

다음 제2전시실에는 해방 후 제주교육의 자람이라는 주제로 15개 코너에 전시되고 있으며, 전시코너별 자료로는 우선 제주교육의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이미지 컷 등 학생활동 사진으로 현대교육의 면모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교육사 연표로 해방 후 미군정하의 교육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제주교육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미군정하의 교육코너와 시련기의 교육코너, 1950년대 음악시간 전경코너, 1950년대 교육코너, 교수학습 자료코너, 제1차 교육과정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기별 교육과정의 변천사 및 그에 해당하는 교과서와 각 학교에서 만든 교육계획서를 전시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세계 각국의 교육현장코너, 특수아동들의 활동과 특별활동 기록물, 학생들이 운동회할 때 준비하는 도구 및 제주도의 교육기관 분포를 볼 수 있는 코너 349점이 전시되어 있다.

제3 전시실에는 제주교육의 열 이라는 주제로 10개 코너에 전시하고 있다. 전시

코너별 자료로는 조선조에 제주교육에 막중한 영향을 준 이를 뽑아 후대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소개하는 조선시대 교학인 코너, 개화기부터 현재까지의 제주 교육열이 높았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제주교육의 의지코너, 제주의 여신상을 느낄 수 있는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의 시장의 어머니들 코너, 1940년대부터 학교건물, 인물, 학생활동을 내용으로 한 사진자료 및 기관이나 학교에서 발간한 교지 등의 간행물을 전시한 제주교육의 발자취 코너, 제주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제주인의 얼 코너, 제주의 어린이 놀이문화를 디오라마 기법으로 전시한 제주 어린이 놀이문화 코너, 제주의 언어문화를 보여주는 코너, 지난날의 학교생활 모습을 회상해 보도록 사진자료를 전시한 추억의 교육현장 코너, 마지막으로 제주교육의 미래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미래의 제주교육 코너등 총 204점이 전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4전시실이 있고, 기획전시실, 체험학습 코너, 야외체험 학습장이 있다. 야외체험학습장은 제주도의 전통초가와 돌문화를 복원 전시하여 제주인의 주거 환경을 포함한 생활양식과 제주문화의 특성을 직접 살필 수 있게 전시하였다. 전체면적 320평에 전통초가와 가구 및 생활도구 그리고 제주특유의 돌문화 총 198 점을 전시하고 있다.

#### (1) 가족과 함께하는 명화감상, 세시풍속체험

다음 <표 12>의 교육프로그램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명화감상실 운영 프로그램과, 전통 세시풍속 체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봉숭아꽃 물들이기 체험 프로그램이다.

봉숭아꽃 물들이기는 학부모님들이 어렸을때부터 해오던 놀이이다. 옛추억을 떠올리며, 아이들과에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표 12>의 명화감상실 운영사업은, 행사 때만 이용하던 뮤지엄 극장을 많은 관람객들에게 개방을 하고자 추진한 방안이었다. 또한, 봉숭아꽃 물들이기 체험은 유아, 초등학생, 학부모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서 도시환경에 적응되어서 촌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봉숭아꽃 물들이기 체험을 제공하고자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고 할수있다.

<표 12> 가족과 함께하는 명화감상, 세시풍속체험 프로그램

사업명	대상	인원	일시	장소	주제 및 강사
1. 명화감상실 운영	학생, 학부모	2000명	여름, 겨울방학 (10일) 8월2일~14:00	제주교육박물관 뮤지엄극장	▣애니메이션 및 가족영화 등
2. 봉숭아꽃물들이기	유아, 초등학생, 학부모	200명	행사기간 2일 7월15일~16일 14:00	제주교육박물관 야외전시장	▣봉숭아꽃물들이기해설 ▣봉숭아꽃물들이기체험 ▣봉숭아과종(야외전시장)

출처 : 제주교육박물관 <http://www.jjemuseum.go.kr>

요즘 봉숭아꽃 물들이는 학습을 쉽게 할 수 있는 염색가루가 나와서 물에 타서 10분도 안되어서 염색할 수 있는 재료가 나왔다. 편리성은 확실히 이러한 재료가 유용하기는 하지만, 직접 자연과 가까이 갈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 같다. 하지만 박물관에서 이러한 체험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개발해 나간다면, 쉽게 접할 수 없는 도시생활에 익숙한 어린이들에게 재미와 흥미,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선물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 (2) 박물관 스페셜 강좌

<표 13>의 강좌로는 많은 계층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어지고 있었다. 평생교육을 중요시 여기는 지금 사회에서는 많은 관람객들에게 교육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러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이다.

<표 13> 박물관 스페셜 강좌 내용

사업명	대 상	인 원	일 시	장 소	주제(강좌명) 및 강사
1. 박물관 스페셜강좌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200명 내외	5월(1일간) 15:00~17:00	제주교육박물관 뮤지엄극장	▫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송기창-숙명여대교수)
			6월(1일간) 15:00~17:00		▫ 역사속에서 배우는 리더쉽 (개설 후 강사선정)
			7월(1일간) 14:00~18:00		▫ 한국신화의 스토리텔링 ▫ 신명나는 우리 판소리이야기 ▫ 탈춤이야기 ▫ 제주도의 창세신화
			12월(1일간) 10:00~12:00		▫ 고3 졸업예정자 인성교육
2. 어린이 박물관 모니터단 운영	초등학생	6개교 (1회)	4월~10월	도내 박물관, 미술관	▫ 탐방:박물관 미술관속으로 빠져들기 * 탐방장소 및 강사 개설 후 선정
3. 분교장 학생과주민이 함께하는 체험학습	분교장 학생 지역주민	2개교	5월~9월 2일(각1회)	신청분교장	▫ 콩 공예 만들기 ▫ 곡물을 이용한 메모판 만들기 ▫ 한지를 이용한 소품만들기 ▫ 점토를 이용한 오색공예만들기

출처 : 제주교육박물관 <http://www.jjemuseum.go.kr>

### (3) 청소년 문화체험마당

<표 14>의 프로그램은 많은 학업으로 문화생활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청소년 문화체험마당’이라는 주제로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표 14> 청소년 문화체험마당 프로그램

사업명	대상	인원	일시	장소	주제 및 강사
청소년문화 체험마당	중, 고 등 학생	100명내외	여름방학중 (10일간) 8월2일~ 12일	제주교육박물관 갤러리카페	▫전통문화 제주어마당극 창작과정이론과 민요(윤미란-한라산놀이패)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청소년문화 제주영상제작과정(UCC)이론과 실기제작교육 및 미디어

출처 : 제주교육박물관 <http://www.jjemuseum.go.kr>

프로그램 운영을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체험학습이나, 견학을 많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인원을 100명 내외로 정하게 되었고, 학업이 바쁘지 않은 여름방학 중에 이용하게끔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었다. 점점 멀어지고 있는 독특한 ‘제주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되돌아보고자 제주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요즘 동영상제작(UCC)이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고있는 만큼, 제작과

정과 과정방법을 청소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었다.

(4) 즐기며 협동하는 박물관 학교

<표 15>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으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다.

<표 15> '즐기며 협동하는' 박물관 학교프로그램

사업명	대상	인원	일시	장소	주제 및 강사
즐기며 협동하는 박물관학교	초등학생	100명	4월9일~ 5월7일 (매주토, 일요일)	제주교육박물관 평생학습실	▣우리춤- 이론과실기 (김정희, 제주춤연구회장)
			여름방학중 (10일) 8월2일~ 11일 오전(설화) 오후(민요)		▣제주설화- 이론과설화극(선명애- 동화섬회장) ▣제주민요- 이론과실기

출처 : 제주교육박물관 <http://www.jjemuseum.go.kr>

이 프로그램은 전통문화 요소를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여 교육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좀 더 빠른 이해력을 주기 위해서 운영하였다.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 방학을 이용하여 민요의 이론과 실기를 병행한 프로그램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일반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없고 교육에서 배우지 못했던 춤과 설화, 제주의 민요 등을 한눈에 쉽게 알아보고 배워나갈 수 있는 교육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5) 평생 학습관 운영 및 홍보

<표 16>의 홍보 프로그램은 성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제주학생문화원과 제주교육박물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교육프로그램이다.

<표 16> 평생 학습관 운영 및 홍보프로그램

사업명	대상	일시	장소	주제 및 강사
1. 평생학습관 운영 및 홍보	학생과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1월~12월	제주학생문화원 전국평생학습축제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리플렛제작</li> <li>▫평생교육프로그램조사 및 개발</li> <li>▫제주 및 전국평생학습축제참여</li> <li>▫각급학교 및 언론기관, 관련기관소식지 등 홍보</li> </ul>
2. 제주평생학습축제 체험학습 참가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4월~10월	제주학생문화원	▫한지공예만들기 3분야
3. 제주교육박물관 운영협의회	운영위원(7인)	1월~12월	제주교육박물관	
4. 평생학습관 운영협의회	평생교육종사자 및 관련전문가	1월~12월		▫평생교육관련기관 종사자 및 전문가와의 간담회

출처 : 제주교육박물관 <http://www.jjemuseum.go.kr>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것을 홍보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리플렛을 제작하는 과정에서부터, 프로그램 조사와 개발 또는 언론기관이나 관련기관 소식지에 홍보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제주학생문화원에서는 ‘한지공예 만들기’ 체험학습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간은 4월 ~ 10월까지이고 넉넉한 기간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었다. 평생학습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좀 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3) 제주도립미술관

하늘, 바다, 땅 등 천혜의 자연을 모태로 인간과 예술이 풍요로워지는 문화체험을 위해 설립된 제주도립미술관은 민간투자시설사업(BTL) 방식에 의하여 38,744㎡의 부지에 연면적 7,087㎡의 규모로서 기획전시실, 상설전시실, 수장고 등의 시설의 미래지향적 복합화와 다목적 공간화로 변화의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장리석 기념관, 시민갤러리 그리고 실기실과 강당, 세미나실을 갖춰 일상적인 커뮤니티 시설로서 다양한 참여와 체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연의 아름다움과 사람의 삶을 예술로 담아 낼 수 있도록 미술관 주변과 후정에 쉼터, 소규모 야외 공연시설을 갖춰 찾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예술의 창작자가 되는 색다른 감흥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제주도립미술관은 산중턱에 자리하여 조용하면서도 제주하늘, 한라산과 유채, 억새들이 보기 좋게 어우러진 “제주의 자연”과 함께하는 미술의 열린 공간이다.

건축 또한 자연의 색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건물의 인위적인 색을 배제하고, 자연과 어울려 그 자체에 자연을 담고자 건축되었다.

또한, 미술관 건축이라 하면 연상되는 무게감 있는 조형성을 통해 건축 그 자체의 위용과 자태를 뽐내기 보다는 제주자연을 새로이 감상하는 열린 프레임이 되고자 하였다. 그 프레임들은 빛에 의한 그림자를 형성하여 공간의 또 다른 깊이감을 주고 있으며 자연 그대로 느끼며, 제주의 하늘, 물, 공기 그리고 빛이 함께하는 미술공간으로서 그 역할이 중요시 되고있다.

미술관 뒤편에 조성한 옥외정원은 제주자연의 정갈함과 소박함을 담고자 하였으며 곳곳에 가족 등 소그룹 단위의 야외활동이 가능하도록 작은 공간들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제주인 기상의 원천인 한라산 백록담의 모형으로 야외무대를 조성하여 작은 음악회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화예술 공간이 되고자 하였으며, 가장 높은 정점에 옴파로스를 설치하여 자연을 모태로 사람과 예술이 잉태되고 풍성해지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1) ‘그림책원화전’ 체험프로그램 운영

‘그림책 원화전’ 교육프로그램의 운영목적은 미술관에서 마련한 체험을 하나의 감각만이 아닌 오감으로 보고, 듣고, 느껴보는 여러 가지의 감각을 체험하면서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표 17>의 내용과 같다.

<표 17> ‘그림책원화전’ 체험프로그램

전시구성	전시내용
시민갤러리‘그림책원화전’	첫째마당 : 작가가 직접그린 그림책원화
	둘째마당 : 전통인형극 ‘홍동지놀음’
	셋째마당 : 무서운 방(아이 무서워)!
	넷째마당 : 같지만 또 다른 세계 옛 이야기
전통극상영	홍동지놀음, 수궁가, 봉산탈춤, 심청가, 흥부가
관화체험장	석판화2점, 목판화6점(순환체험)
포 토 존	가족과 함께하는 포토존(로봇태권 V2점)

출처 : 제주도립미술관 <http://jmoa.jeju.go.kr/>

<표 17>의 ‘그림책 원화전’ 체험프로그램은 1부 전시의 많은 어린이와 학생들이 참여(2,500여명)속에 그림책원화전 2부를 새롭게 업그레이드하여 보다 많은 선조들의 지혜와 회화에 대한 미술기법을 배우는 입체적인 체험 프로그램이었다.

2010년 01월 02(토) ~ 2010년 02월 28(일) 동안, 도립미술관 시민갤러리 및 부대공간에서 전시되었으며, 참여작가로는 국내 그림책 원화작가 14명이 참여하였다. (정은희, 최미란, 이수진, 민은정, 김유대, 김은정, 이윤정, 서선미, 이승현, 김은미, 김은희, 김지영, 한유민, 인강) 이 프로그램에 체험대상은 제주도내 유아원,

유치원 원생(5 ~ 7세)또는 저학년 어린이(1 ~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체험기간은 2010년 01월 05(화) ~ 2010년 02월 28(일) 원화전과 연계한 체험이 이루어졌다.

체험내용으로는 ‘그림책 원화전’ 관련 오리엔테이션이 10분 정도 진행되었으며, 내용으로는 우리의 이야기인 설화(신화, 전설, 민담, 민속극 등)에 대해 배우고, 회화와 디오라마 및 DVD로 재현된 작품들을 설명하며, 컴퓨터를 활용하여 그림책원화전을 설명하게 되었다.

멀티미디어를 통한 설화구연도 있는데 (편당 10분 ~ 20분) 그림책원화전과 연계하여 미디어를 통한 학습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었다. 작품으로는 수궁가, 심청가, 흥부가, 흥동지 놀음, 봉산탈춤 등을 상영 하였다.

다음 프로그램으로 전시장관람 및 시민갤러리 독서대에서 동화책일기(자유)프로그램이었다. 시민갤러리에서 관람을 시작으로 기획실에 기획전을 관람하고 상설 전시실에 상설전을 관람 후에 시민갤러리에 준비된 독서대에서 원화전 관련 동화책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민화목판화 찍어보기 체험행사(20분)가 마련되어 있었고, 1부 전시에 이어 2부에서는 석판화 2점(용판화, 십장생판화)을 추가하여 아이들이 목판화와 석판화 체험을 가능하게 하였다.

‘무서운 방 체험하기’(20분)는 총 5편의 작품을 그림책 원화로 제작한 동영상을 관람할 수 있었고, 바리공주, 까막나라 불개, 왜가리 똥 여우주둥이, 여우누이,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등을 관람할 수 있었다.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포토존 사진찍기가 마련되어 있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이 만든 상상 구현물을 설치하여 다함께 찍어보는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가족 관람객에게 정말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교육 프로그램들도 마련되어 있었다.

## (2) 도립미술관과 함께하는 영화감상 프로젝트

제주도립미술관에서는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강당을 이용하여 한 달에 한번 영화감상회 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졌으며 <표 18>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표 18> 제주도립미술관 예술영화 감상회 프로그램

	제 목	일 시	장 소
3월	모나리자 스마일	2010.3.14(일)3회	미술관강당
4월	잠수종과 나비	2010.4.11(일)3회	미술관강당
5월	윈스	2010.5.9(일)3회	미술관강당
7월	고야의 유령	2010.7.18(일)3회	미술관강당
8월	빌리 엘리어트	2010.8.15(일)3회	미술관강당
9월	취화선	2010.9.12(일)3회	미술관강당
10월	폴락	2010.10.10(일)3회	미술관강당
11월	맘마미아	2010.11.14(일)3회	미술관강당
12월	프리다	2010.12.12(일)3회	미술관강당
1월	피아노의 숲	2011.1.23(일)3회	미술관강당
2월	까뮈유프로텔	2011.2.20(일)3회	미술관강당
3월	빈센트반고흐	2011.3.27(일)3회	미술관강당

출처 : 제주도립미술관 <http://jmoa.jeju.go.kr/>

<표 18>의 예술영화 감상을 위해 제주도립미술관의 미술관 강당은 큰 스크린과 영화관 같은 좌석이 비치되어 많은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여가생활을 집에서 보내다가 가족끼리 혹은 연인끼리 미술관에 놀러와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도 감상하고, 야외에 산책도 하여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매달 홈페이지에 올라온 영화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으며, 주로 다양한 예술가의 삶을 알 수 있는 교양영화로서의 내용을 상영하였다.

(3) 도립미술관과 함께하는 음악회

제주도립미술관에서는 2010년 6월 26일 토요일 19시부터 예술과 자연이 살아숨쉬는 도립미술관 야외공연장에서 개관 1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가 열렸다. <표 19>는 제주도립미술관 음악감상회 프로그램 내용이다.

<표 19> 제주도립미술관 음악 감상회 프로그램

주 제	일 시	장 소
미술관에서 OST와 CM송을 만나다	2010. 4. 24(16:00)	미술관강당
한 여름밤 야외음악회	2010. 8. 29(19:00)	도립미술관 야외공연장
배따라기 양현경 과 함께하는 도립미술관 가 을콘서트	2010. 10. 30(15:00)	도립미술관 야외공연장
미술관에서 듣는 음악동화 흑부리아저씨와 도 깨비 이야기 콘서트 개최	2010. 4. 23(15:00)	도립미술관강당

출처 : 제주도립미술관 <http://jmoa.jeju.go.kr/>

<표 19>의 음악감상회 프로그램에서 운영된 음악회에는 파워풀하고 가창력 있는 열정적인 국민가수 신호범이 출연하여 시원한 초 여름밤의 추억을 안겨주었다. 또한 독특한 장르를 추구하는 ‘제주타악기 앙상블’의 연주, ‘앰퍼시 앙상블’의 아름다운 목소리, 클래식 바이올린과 강렬한 전자소리가 어우러지는 ‘김형삼’ 전자 바이올린 연주, 고전음악에 새로운 장르를 결합한 하모니로 대중에게 다가서며 크로스오버 음악을 선도하는 ‘모던아츠’ 연주와 해외순회 공연으로 제주를 알리는 문화사절단 활동을 하고 있는 ‘한라소년 합창단’이 출연하여 대중음악 속 클래식 뮤지션으로 신비감이 묻어나는 공연을 펼쳤다. 도립미술관 개관1주년 음악회는 도민들과 함께하는 미술관으로 어우러지는 음악향연의 장이되었다.

#### (4) 제주도립미술관 7월 시민 미술 강좌

제주도립미술관에서는 7월 시민미술 강좌로 ‘한젼마의 한반도 창고 뒤지기’ 프로그램으로 ‘작가초청프로그램’ ‘제주도립미술관에서 함께하는 어린이날’ 프로그램, ‘행복가득 ! 기쁨충전 ! 우리들 세상 ! 어린이날 맞이 이벤트 행사’ 프로그램을 주제로 다양한 시민미술 강좌를 마련하였다.

##### 가. 한젼마의 한반도 창고 뒤지기 프로그램

제주도립미술관에서는 7월 시민 미술 강좌로 ‘한젼마의 한반도 미술창고 뒤지기’라는 주제로 미술 강좌가 이루어졌다. 미술관 강당에서 2010년 7월 31일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아티스트 ‘한젼마’씨가 강의를 하였다.

강의 내용으로는 한국 미술 대표작가 흔적 더듬기와 전국 미술창고 지도여행, 마지막으로 미술에 대한 생각, 감성워밍의 시간 등으로 진행이 되었다. 다재다능한 작가의 초청강연을 통해 관람객들이 최근의 미술시장의 경향과 다양한 작가 및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강좌가 이루어졌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제주도 내 미술관에 교육프로그램에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다. 앞으로도 이러한 많은 초청강사들의 강연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 나. 작가초청 프로그램

<표 20>의 프로그램은 어린이에게 현대미술을 보다 친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분야로써 접근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작가와 함께 작품제작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초청 프로그램이다.

체험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다양한 재료를 통해 표현해 오는 과정의 예술작품 제작과정을 흥미유발을 하고 할 수 있는 과정의 진행 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골라골라 붙이는 꼴라주 세상’ 전시장소는 제주도립미술관 시민갤러리이며, 꼴라주 기법을 활용한 조각, 회화 등 국내작가 6명의 작품 12점이 전시되었다.

전시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 체험대상은 도내 초등학교의 학습단위 참석 가능한 어린이가 대상으로 미술관 방문어린이는 20명 내외로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대미술의 기법중 하나인 꼴라주 등을 작가와 함께 만들면서 전시와 체험을 병행하여 어린이의 만족도를 증가 시켰다.

<표 20> 작가초청 프로그램

반편성	작가명	체험일	체험시간	체험내용
1반/2반	홍진숙	10.27(수)	오전 10:30	미술관주위에 여러소재를 이용한 작업
3반	우혜진	10.28(목)	오후 2:30	셀로판지를 이용한 모빌작업
4반/5반	우영운	11.10(수)	오전 10:30	잡지등 인쇄물을 이용한 작업
6반/7반	홍상식	11.23(화)	오전 10:30	빨대를 이용한 하트 등 여러모양 제작
8반/9반	구인성	12.2(목)	오전 10:30	골판지를 이용한 그림작업
10반/11반	우무길	12.10(금)	오전 10:30	스티로폼을 이용한 여러모형 제작

출처 : 제주도립미술관 <http://jmoa.jeju.go.kr/>

체험장소는 제주도립미술관 실습실이며, 체험시간은 전시기간 중에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이루어졌다. 작가별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홍진숙 작가’ 제주민속의 특성과 내용을 학습한 후 미술고나 주변에 있는 다양한 재료를 프로타주 후 풀라주 기법으로 배접지에 붙이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었다.

‘우혜진 작가’는 지퍼대신 여러 가지 캐릭터를 A4용지에 출력하여 약간의 두께가 있는 여러 가지 색깔의 OHP필름과 겹쳐서 모양을 따라 그리고 가위로 오려낸 후 모빌대에 매듭을 지어서 모빌을 제작하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우영운 작가’는 잡지, 신문 등 인쇄물을 잘게 오린 후 미리 준비한 다양한 상자나 모형에

붙이는 체험프로그램이다. ‘홍상식 작가’는 여러색의 빨대를 이용하여 하트, 캐릭터, 이름 등 여러 이미지나 문자를 만드는 체험이다. ‘구인성 작가’는 이중풍경의 원리를 골판지로 표현하는 방법을 학습한 후 골판지로 각각의 이미지를 만드는 체험이다. ‘우무길 작가’는 제품포장재로 사용된 스티로폼을 도시를 연상하는 빌딩, 도로 등으로 만든 후 판자위에 실리콘으로 부착하여 도시를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체험프로그램의 기대효과는 평소 어렵게 생각하는 현대미술을 전시 및 체험을 통해서 친숙해지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며, 작가와 함께 체험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이해도 증진효과를 기대하게 되었다.

#### 다. 제주도립미술관과 함께하는 어린이날

다음 제주도립미술관에서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 가족 간의 화합과 즐거운 배움의 장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 <표 21> 행복가득 ! 기쁨충전 ! 우리들 세상 ! 어린이날 맞이 이벤트행사

프로그램명	행복가득 ! 기쁨충전 ! 우리들 세상 ~
소원나무에 희망 잎새달기	희망 잎새 쓰고 소원나무에 달기
알록달록가면 꾸미기	동물, 꽃 등을 직접 제작하여 가면 만들기
인디애니메이션 ‘가족을 위한수다’	아빠의 자장가, 맘, 넘버1009, 파파스토리, 낚시하는 아빠

출처 : 제주도립미술관 <http://jmoa.jeju.go.kr/>

행사명은 ‘행복가득! 기쁨충전! 우리들 세상!’ 으로 행사내용으로는 아하! 미술퀴즈쇼 - 어린이와 어른 100팀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어린이와 어른이 2인 1조가 되어 미술에 관한 퀴즈를 풀어보게 되는데, O·X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미술 퀴즈 문제를 접해보므로써 어린이들이 미술에 대한 이해와 상식을 돕게 되



었다. 미술 퀴즈쇼 참가어린이 전원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하며 참가 팀 중 우수한 10팀을 선발하여 상품을 증정하였다.

이밖에 행사 중에서도 ‘소원 나무에 희망잎새달기’ - 미술관 로비에 소원의 나무를 마련하여 어린이들이 본인이나 가족 혹은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문구를 희망 잎새에 직접 쓰고, 소원나무에 달아봄으로써 소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는 행사이다.

다음 프로그램으로는 ‘알록달록 가면 꾸미기’ - 가면 틀에 아이클레이를 이용하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물, 꽃 등을 직접 제작하여 가면을 만들어보는 체험행사이다. 참여수가 많아 ‘가면꾸미기’가 종료되면 사랑의 카드쓰기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미술관 강당을 이용한 프로그램도 진행되었다. 인디애니메이션 ‘가족을 위한수다’ 상영은 아빠의 자장가, 맘, 넘버 1009, 파파스토리, 낚시하는 아빠, 어느날, 버스테이파티 등 총 7편의 작품으로 이루어지며 가족의 소중함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제주도립미술관에서는 어린이날 행사를 통하여 많은 어린이들에게 미술에 대해서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어린이들이 배움과 나눔의 기쁨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4)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은 2007년 9월 1일에 개관하였다. 제주현대미술관은 본관과 분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1,773㎡ 으로 김홍수 화백 기증작품 전시 특별전시실과 상설전시실, 그리고 2개의 기획전시실 및 수장고, 자료실, 아트샵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관은 지상1층의 연면적 166㎡ 건물로 박광진 화백 기증작품이 특별 전시되어 있다.

이 밖에도 제주현대미술관이 위치한 약 99,383㎡ 의 저지 문화예술인 마을에는 20여동의 예술인 창작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1,000여명이 동시관람이 가능한 야외공연장 시설과 어린이 야외조각공원 등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반을 갖추어 가고 있다.

또한, 미술관 주변에는 방림원 야생초박물관과 평화박물관, 생각하는 정원, 수컷돌 거북이 수석박물관 등이 근접해 있어 앞으로 문화예술의 관광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테마공간 환경을 지니고 있다.

(1) 가족과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

제주현대미술관에서는 5월에 가정에 달은 맞아서 교육프로그램 행사를 개최하였다. <표 22>의 교육 프로그램은 5월 5일 어린이날 맞이 교육 프로그램으로 1부 행사와 2부 행사로 나뉘어지는데, 2009년 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 22> 가정에 달 교육프로그램 내용

일시	대상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내용
2009년 5월 5일	‘제주화산토와 화산재 유효용 도자기 만들기’	도내 초등학교 약 300명	제주화산토를 이용하여 도자기를 만드는 체험행사

출처 : 제주현대미술관 <http://www.jejumuseum.go.kr/>

장소는 제주현대미술관 어린이 야외조각공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참가인원은 선착순 200명으로 하였다. 2부 행사에서는 ‘제주 화산토와 화산재유효를 활용한 도자기 만들기 대회’ 프로그램명이다. 대상은 도내초등학교 약 30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프로그램에 내용은 제주화산토를 이용하여 도자기를 만드는 체험행사이다.

도시생활에 익숙해진 어린이들에게 자연과 함께하는 체험에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러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제주에 화산토를 이용하여 도자기를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학교에서 미술시간에 해보았던, 지점토나 찰흙과는 달리 정말 자연적인 흙을 이용하여 작업을 해보게 되었다.

아이들에게는 좋은 체험과 추억의 기회를 제공하고, 어른들에게는 자연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다.

(2) 제주현대미술관과 함께하는 음악교육 프로그램  
 제주현대미술관에서는 우리나라 전통국악과 클래식 공연을 내용으로 한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가. 함께하는 음악 교육 프로그램

<표 23>은 미술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국악과의 캠프’라는 주제로 제주현대미술관에서 실행되었던, 음악 교육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 전통예술의 명맥을 유지해 온 국악공연 프로그램이다.

<표 23> 함께하는 음악 교육 프로그램 내용

<p>첫째날 2009. 07. 03 (금요일)</p>	<p>(명창과의 만남)                  □ 장소 : 저지문화 예술인마을                  □ 오프닝 : 오후 6시 ~ 7시30분(예정)                  □ 행사순서                  - 만남의 인사(참가자 상견례)                  - 전통연희 강의 (안숙선 명창)                  - 단소독주 (이용구)                  - 안숙선 명창단가                  - 거문고 독주 (최영훈)                  - 민요명창 (안숙선, 김차경, 정미정)                  - 참가자 디너제공(간단한저녁파티)</p>
<p>둘째날 2009. 07. 04 (토요일)</p>	<p>(문화강좌, 흥겨운 나눔)                  □ 장소 : 제주현대미술관 야외조각공원                  □ 오프닝 : 오후 6시 ~ 7시30분(예정)                  □ 행사순서                  - 서울지역 참가자 민요명창                  - 이어령 전장관 문화강좌(20분내외)                  - 가야금 명창                  - 안숙선 명창 판소리                  - 행사참가자 좌담회                  - 참가자 디너제공(간단한 야외파티)</p>

출처 : 제주현대미술관 <http://www.jejumuseum.go.kr/>

한여름에 야외에서 진행된 공연과 강좌 등을 통해 관람객들이 그동안 흔히 접

해보지 못한 우리 전통 국악과의 만남으로 새로운 문화체험 활동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전통공연 예술은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중들과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전통음악에 대한 전문 문화의식 고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이해하기 쉽고 대중적 취향에 맞는 내용의 현대적 연주기법 등과 전통 국악의 내용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확대된다면 국악인구의 저변확대에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2010 열린 미술관으로의 초대

제주현대미술관에서는 1년에 2차례 음악 감상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감상회는 우리나라 대표적 지휘자인 금난새와 함께하는 미술관음악회 클래식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표 24> 2010 열린 미술관으로의 초대 - 클래식 프로그램 내용

일시	장소	프로그램명	내용
2010년 10월10일	제주현대미술관 '상설전시실'	열린미술관으로 초대 - 금난새와 함께하는 미술관음악회	- 해설 :금난새 - 연주 : 유라시안, 앙상블, 카츠노리세오(플룻티스트) -로시니:현을위한소나타2번 -모차르트:모차르트, 플룻4중주D장조

출처 : 제주현대미술관 <http://www.jejumuseum.go.kr/>

창의력 넘치는 아이디어와 재미있는 해설로 클래식 음악이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늘 청중과 함께 호흡하는 무대를 만들어 온 무대는 리스트의 헝가리안 랩소디 2번, 치마로자의 오보에 협주곡 C장조,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F장조 K.138이 연주되었다.

금난새의 지휘로 진행된 클래식 문화공연을 통해 지역민에게 젊은 의욕과 정열이 넘친 활기있는 무대를 선사하였다.

### 3. 제주도내 박물관·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주지역의 박물관·미술관 교육 프로그램 현황을 알아본 결과 각 기관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었다. 본 장에서는 제주지역 박물관·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박물관·미술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변화를 중점으로 박물관·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의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 1) 제주도내 박물관·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의 문제점

제주도내 박물관·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 내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가 미흡하고, 관리가 허술하여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은 기관의 재정적인 문제와, 제주지역이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적 반응, 학교, 가정의 교육적인 환경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나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적, 오락적 온라인 프로그램들이 실행되고 있는 기관들도 있지만 사이트도 없이 자체 전시 관람만 하는 기관들이 많았으며, 정보 전달이 되지 않고 업데이트도 되지 않는 곳도 흔하게 볼 수 있어 아직 제주지역의 박물관·미술관을 통한 교육적 환경이 많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제주지역의 여러 기관을 탐방하고, 주요담당자와 인터뷰를 한 결과 정부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의 연계 또한 시간, 장소에 따른 환경적 제약과 비용 등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교 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의 시간이 배분되어 있고 한학기당 한번 이상의 박물관·미술관 체험교육을 권장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학생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의 의욕과 자질이 중요하지만 제주지

역내의 강의, 세미나, 연수 등의 지식을 습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일부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들은 자체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자발적인 동기라 관심이 있는 교사나 학교내에서만 실천이 되고 있었고, 현직 교사들이 의무적으로 들을 수 있는 형식이 없어 무관심으로 지속되고 있다.

## 2) 제주도내 박물관·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의 개선방안

최근 우리나라의 박물관·미술관 교육을 볼 때 서양의 앞서나가는 박물관·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자체 연구에 힘써 현재 실시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에서 보여지는 학습자 중심의 체험학습과 한 학기 1회 이상의 박물관·미술관을 통한 체험학습 권고에 부흥하는 적절한 문화체험 중심의 감상비평활동, 효과적인 교육자원과 프로그램의 제공, 적절한 자극을 줄 수 있는 다량의 내용의 교구와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지역 박물관·미술관 교육도 국내 여러 박물관·미술관의 좋은 프로그램들을 받아드리고 계발하여 제역의 문화발전에 앞장서며, 지역 특색에 맞는 체험 학습공간의 박물관·미술관이 많이 생겨나야 한다.

제주도내 박물관·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은 여러 사례를 들어 조사한 결과 제주지역에 박물관·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지역 박물관·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은 보다 구체적인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말 가족 프로그램의 개발은 제주지역 박물관·미술관의 과제이다. 가족단위의 이용객을 위하여 어떠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는가는 박물관·미술관 전시실도 중요하지만 가족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놀이나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 연극 등의 전시 관련 활동이 포함 되었으면 좋을 것이다. 가족 전원이 함께 관람하고 창작하는 프로그램도 좋다. 어린이를 위한 활동지와 어른을 위한 전시안내, 전시관람과 연계되는 창작활동이 바람직한 프로그램의 방향이 될 것이다.

둘째, 제주지역 박물관·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제주지역의 현 상황이 청소년들에게 자유로운 활동의 시

간을 주고 있지 않으나, 주 5일 수업제를 비롯한 교육계의 변화에 발맞춰 청소년들에게 우리 문화와 예술을 체험하는 시간을 제공하였으면 한다.

제주지역의 박물관·미술관은 이들에게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이해와 감성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일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박물관·미술관의 교사 연수 교육 프로그램에 더욱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교사 연수의 프로그램은 교사들의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친밀도를 제고하고 교사들이 전시물을 교육의 교재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을 전달한다는 취지에서 실시된다. 학생들이 박물관을 자주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제주지역의 교육 현실에서 교사 연수는 박물관과 학교를 간접적으로나마 연결하는 고리의 역할을 기대 할 수 있다.

넷째,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만큼 박물관의 출판은 중요하다. 현재 제주지역 박물관·미술관들은 전체의 도록과 명품 중심의 소규모 안내 책자들을 발간하고 있다. 이런 박물관과 전시물의 소개도 중요하지만 전시물과 전시를 이용한 교육적 목표와 기대효과가 있어야 한다. 박물관의 전시를 이미 관람한 어린이들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관람의 기억을 간직하게 한다는 것 보다는 그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의 새로움을 발견하는 또 다른 학습의 기회를 제공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박물관·미술관의 전문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제주도내 효과적인 교육 활동과 전시기획 등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부족은 박물관, 미술관 현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 박물관,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자나 교사에 대한 연구, 양성화 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VI. 결론

최근의 박물관·미술관은 기존의 수집, 보존, 전시 기능 외에도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며 각종 교육프로그램, 강연, 워크샵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립박물관에 대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을 장려하는 재정 지원을 통해 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큰 자극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박물관·미술관 교육의 이론적 배경을 알아보고 박물관·미술관을 통한 미술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미술교육을 통해 정서적인 기능과, 실제 경험을 통한 지식적·논리적 인지력을 발달시킨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제주도내 박물관·미술관의 현황조사로 나타난 문제점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나타난 결과와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가 미흡하고, 관리가 허술하여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구체적인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 없이 전시 관람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셋째, 학교연계를 통한 박물관, 미술관 교육이 미흡하여 프로그램 또한 개발이 없었다.

제주도내 박물관·미술관 교육프로그램과 학교 교육의 연계를 통하여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 내에서도 전문교육담당자의 공식적인 직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감상교육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박물관과 미술관의 교육을 위한 자료나 정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강의, 세미나, 연수와 같은 구체적인 방법 제시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박물관·미술관 내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적인 도록 등의 출판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박물관 내 프로그램 기획자나 교사에 대한 연구, 양성화 작업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박물관·미술관예술정책의 기본은 공급과 수요의 양적인 팽창을 도모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선 전통예술계의 창작, 공연, 연구, 교육분야 전문인력이 많아져야



하고, 이들에 의한 활동도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수용하는 수요층도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과 제도, 기관, 단체 또 이를 위한 재원도 확보된다면 박물관·미술관 교육은 보다 쉽게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단 행 본>

- 김형숙(2001), 「미술관과 소통」, 서울:예경
- 김혜경 윤희/한병삼감수(1996), 「미술관/박물관이란 무엇인가」, 화산문화
- 김성원(2002), 「현지 미술관 큐레이터」, 문화예술경영 이론과실제, 서울생각의나무
- 백령(2005), 「멀티미디어 시대의 박물관 교육」, 예경
- 박휘락(2003), 「미술감상과 미술비평교육」, 서울 : 시공사
- 박신의(2004), 「현대사회와 미술관의 기능」, 과천: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학 강좌
- 이원영(1997), 「미국 박물관 교육의 현호아과 그 교육적 의의-박물관의 문화 교육적 기능」, 서울:예담
- 윤종건(2002), 「창의력 길잡이」, 서울 원미사
- 진동섭의공저(2005), 「한국 학교조직 탐구」, 서울 학지사
- 한미애(2001), 「큐레이터, 그리고 미술관」, 서울:정주

### <논 문>

- 김희진(2002), “국내외 어린이 대상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 현황 비교 분석”,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지영(2005), “미술관의 미술교육프로그램 실태 연구-국·공립미술관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이경민(2010),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의 효율적 개선방안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장문정(2008),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조지현(2003), “현행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실태 조사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기 타 문 헌>

- 국립현대미술관(2006), 「국립현대미술관 연보 2005」, 서울 : 국립현대미술관
- 백령(2004), 「미술관 교육의 이론과 실제-국립현대미술관의 청소년을 위한 현대 미술체험교실」, 미술교육논총 제18월1호

<인 터 넷 사 이 트>

국립현대미술관 <http://www.moca.go.kr>

국립제주박물관 홈페이지 <http://jeju.museum.go.kr/kr>

제주도립미술관 <http://jmoa.jeju.go.kr/>

제주현대미술관 <http://www.jejumuseum.go.kr/>

제주교육박물관 <http://www.jjemuseum.go.kr>

<Summary>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ducational Programs of Museums &  
Galleries  
- Focusing on Jeju Island -

Ko, Eun-Ju

Major in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ang, Dong-Un

Based on its natural environment blessed by heaven which is remarkably different from other areas in terms of geographic, historical aspects, Jeju Island has unique cultural characteristics with high academic value including remaining archaic words. Through this distinctive traditional culture of our ancestors, we should follow traces of local culture now and take an interest in recreating culture. For this reason, the role of museums & galleries, which are able to connect the past with the present, is important. Especially, among various functions of them, educational programs for children has significant value because art education by museums & galleries can help them develop cognitive skills through emotional functions and practical experiences of human beings.

Therefore, this study intended to suggest ways of improvement of educational programs of museums & galleries in Jeju Island by investigating the current

situation of them and analyzing their problems, an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the current situation of educational programs having been carried out by national and public museums & galleries in Jeju show that general exhibition viewing makes up a large part of their programs. Compared with museums & galleries in other areas, specific programs and their implementation by museums & galleries in Jeju are inadequate and yet communication with local students during school vacation and programs for families through special events rev up.

Second, studies on educational programs by related institutions are insufficient and supervision is slack, which has kept those programs from being active.

Third, without programs for specific audience most exhibitions are being organized focusing on items being displayed 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carry out a variety of programs in museums & galleries in Jeju Island.

Fourth, few concrete methods such as lectures, seminars and training have been suggested which can provide data, information and knowledge for education of museums and galleries. Therefore, there should be efforts to foster program planners and instructors who work for museums & galleries.

Museums & galleries in Jeju Island can be great educational sit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will drive our society's future and by using those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of them students can take an interest in exhibitions and thus it is assumed that you can make students proud of Jeju's unique culture and art.